



40번째 생일 맞은 대동제, 성공적으로 마쳐

지난 25일, 가수 김장훈의 힘찬 공연을 마지막으로 대동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대동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음식이 풍부한 축제였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참여해 축제를 함께 만들었다.

첫날에는 성북 시각장애복지단에서 준비한 시각장애우가 봐주는 '사주', 인문대 학생회에서 준비한 '팝콘을 팔아요', HBS가 주최한 낙산가요제가 진행되었다.

이날 낙산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김민정(성균관대 영어영문 2)학생은 "신나게 놀자는 마음으로 출전하게 됐는데 대상을 주셔서 얼떨떨하다. 다른 분들도 잘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은샘(인하대 경영 4) 학생은 "기대 안했는데 수상하게 돼서 좋았다. 졸업 전에 추억을 남기고 싶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기쁘다"고 전했다. 고내 출전자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한 이준영(영어영문 2) 학생은 "부족한 실력인데 수상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 음식부스로 참가한 비

둘기 봉사대 장공인(68) 회장은 "성북구 주민들과 함께하여 즐겁다. 어린학생들과 같이 축제를 즐기니 우리 또한 젊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학교와 우리 봉사단의 교류가 더욱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행정대학원 부스에서는 떡볶이, 제육볶음, 구과부침, 해물파전 등을 팔았다. 행정대학원 부스에서는 행정대학원 임원들이 일했으며, 순이익금은 오는 11월 8일 한성대 대강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제'에서 합창동아리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김정숙(50)행정대학원 원우회장은 "문화예술제는 모든 한성인들의 관람이 가능하니 많이 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둘째, 셋째날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국의 전통음식을 판매했다. 몽골에서 유학온 정기스(무역 3)학생은 "이번 축제에서는 허슈르(군만두), 초이왕(국수볶음)을 판매했다. 학생들이 재료를 직접 구매하고 준비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생각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많은 학생들이 관

심을 가져주고,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중국인 유학생 심홍(인테리어 2) 학생은 "이번에 판매한 음식으로는 양꼬치, 폴라닭갈비, 청도백주 등이 있다. 사람들이 싸고 맛있다고 좋아했다. 일을 하다보면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며 참가소감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만 따로 주점을 여는 것보다 한국학생들과 함께 주점을 열고 싶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외국인 부스에 방문한 민규식(자영업 33) 씨는 "몸짬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 부스를 담당하는 이나래(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 연구원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좋았다.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고,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판매했던 양꼬치가 인기가 많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축제 때 선보려고 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택견 시범을 못했다는 점이다. 부스에서 일하는 유학생들과 함께 사진 찍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여건이 되지 못해 같이 사진을 찍지 못한 것도 아

쉽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번 행사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제에 참가한 오세창(산공 1) 학생은 "대학에 와서 처음 참가하는 축제다. 학생회 소속이라 주점에서 판매할 음식을 준비했다. 주점일이 바빠서 몸은 조금 힘들지만 재미있다"고 말했다. 김지예(경제 2) 학생은 "축제가 너무 주점에 집중되어 있다.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점에 약간 실망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축제 마지막날 진행된 한성대의 명가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손재홍(경제 3) 학생은 "준비 기간이 짧아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친구들과 여자친구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다. 우승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접 학비 및 생활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닌다는 그는 "그동안 개인적인 일로 바쁘게 살아서 학교생활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봉사활동 및 학교생활에 열심히 참여할 것"이라며 부모님께 "항상 믿어주셔서

고맙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잉글리시 라운지는 축제 둘째, 셋째 날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으로 꼽았던 이 클럽에는 예상대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클럽에 참여한 박기량(성균관대 심리학 3) 학생은 "클럽이 야외에 있어서 상쾌하고 좋다"고 말했다고, 또 다른 참가자인 김정은(회화 3) 학생은 "재밌고 클럽분위기가 상쾌하다. 학생들이 지저분하게 놀지 않아서 좋다"고 전했다.

축제에 처음 참가하는 김선유(산공 1) 학생은 "젊음이 느껴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불타는 금요일을 만끽하는 듯하여 기분이 들른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축제였지만 축제가 종료된 후 낙산의 메리에서는 각종 분실물을 찾는 글이 올라와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휴대폰을 분실한 내용의 글이 주를 이뤘고 심지어 자동차 열쇠를 분실한 내용의 글도 올라오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김현성 기자 1033110@hansung.ac.kr

총학생회, 클린캠페인 실시



▲ 지난 5월 31일 총학생회가 클린캠페인을 가졌다. 이 날 12시부터 1시, 4시부터 5시까지 총 2회에 걸쳐 강의실과 휴게실을 비롯한 학교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총학생회는 오는 6월 5일 클린캠페인을 한 번 더 가질 예정이다.

3	편한 학식은 가라, 대세로 떠오른 학식들		10	독립영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6, 7	제6회 사진공모전		12	탈의 걸모습에 숨겨져 있는 다양함

지면안내

학생회소식

총학생회 • 6/5 클린캠페인	인문대학생회 • 6/13~14 간식배부 • 6/11~21 섀프인쇄소
총대의원회 • 대의원총회 6/4 1시 낙산관 대강당	공과대학생회 • 6/11~14 간식배부
총대의원회&학생복지위원회 • 8/4~9 한성문화기행단	

한성대신문사 제37기 수습기자모집

기자작성?? 어렵지 않아요.
정해진 커리큘럼만 따라오시면 누구든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담갖지 말고 전화주세요^^



- 기자혜택** 개인컴퓨터, 개인책상, 개인 사물함, 원고료, 기자 활동비, 기자 인증서 발급
- 모집분야** 학내 뉴스 및 사회/문화/기획면 취재기자 (사진촬영 가능한 자 우대)
- 모집대상** 학부 재학생 누구나 (더 많은 한성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모집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12학년 포함 전 한성인들 모두 환영!)
- 접수기간** 6월 15일까지
- 선발전형** 신문사 방문 후 입사지원서 작성
- 문의** 010-4534-8682, 02)760-4186



선택은 '얻는 것'이 아닌 '잃는 것'

『가끔은 제정신』의 저자 허태균 교수와의 만남

지난 31일 미래관 DLC에서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진행됐다. '우리는 진실을 원하는 걸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 강연에서 정주택 총장은 "허태균 박사가 와줘서 고맙고 환영한다. 이번 강연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주택 총장의 축사 후 이어진 강연에서 허태균(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현대인들은 착각을 생각보다 많이 한다. 다양한 착각 중에도 '선택에 대한 착각'이 있는데, 흔히 사람들은 선택을 여러가지 중에서 하나를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선택은 하나의 선택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선택을 통해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 또한 있을 것이다. 잃는 것과 얻는 것을 잘 견주어본 뒤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신중한 고민 없이, 자신이 어떠한 리스크에 노출되는지에 대한 지각 없이 선택을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가니까'라는 이유로 대학에 진학한다. 현재 대학 진학률이 80~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대졸자에게 대졸 사무직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내놓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현 취업상황

을 분석했다.

뒤이어 그는 선택의 기준으로 '오감의 가치'를 제시했다. 아이폰의 인기 대해 "스티브 잡스는 '오감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인간이 될 원하는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는 이같은 통찰력이 아이폰 같은 물건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부분에서 세계 정상 수준에 있음에도 아이폰 같은 창의적인 물건이 안 나오는 이유는 학생들이 인간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끝으로 그는 "20대 학생들은 앞으로 70~80년을 더 살아갈 것이다. 단거적인 성과에 급급해 하지 말고 인생을 길게 보며 소신을 지켜라. 그리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대학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간직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조언했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집의응답이 이어졌다. 정지우(영어영문 3) 학생은 "개전에서 용 나다는 말이 옛말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허 교수는 "옛날에는 사범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바로 상위 1%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가치관이 다양해져서 성공했다는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또한 허 교수는 "20년 전에는 심리학이 유명하지 않은 전공이었다. 하지만 심리학에 대해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 즐기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더니 어느새 교수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때만 해도 대기업에 입사하면 정년이 보장됐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라고 되물으며 "공무원이 안 정적이거나 이유로 인기가 많지만 20년 후의 미래에는 어떻게 장담할 수 없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게 중요하다."며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 강의의 들은 한동호(계 1) 학생은 "강연을 들으며 '착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또한 강병주(영어영문 2) 학생은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예시를 들고 다양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이번 저자와의 만남 행사에서는 다독상 표창이 함께 이루어졌다. 다독상 수상자는 최윤희(행정 4), 김효진(영어영문 2), 김우석(영어영문 4), 정가희(지정 4), 김경숙(무역 4) 학생이, E-learning상에는 최유리(행정 4) 학생이, E-book상에는 박은이(지정 2) 학생이, 사랑상(다독입상)에는 이윤철(경영 4)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이 주어졌다.

김현성 기자 jourkim@hansung.ac.kr

인문대 사진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옥같은 사진들 전시돼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탐구관 거북이 석상 근처에서 인문대 사진전이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새내기 배움터 이후로 각 과 활동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추억을 학우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사진전은 인문대 4개 단과대학(한국어문, 영어영문, 역사문화, 지식정보)이 각각 31매의 사진을 제출했고, 대표작 1장을 각 과 학생회에서 선별해 별도로 전시했다.

사진 주제는 자유였고, 개인사진과 삼삼오오 모여 촬영한 단체 사진들이 사진전을 이루었다. 이날 사진전에는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들이 첫 엠티 때 학과 동기 및 선배들과 함께 활하는 자리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다. 인대체전 도중 경기에 임하기 앞서 선수들의 비장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이번 사진전의 제출기준은 기본 사이즈인 4x6사이즈로 전시되었고 대표작은 A5 사이즈 총 124매가 전시되었다. 임우정(한국어문 3) 인문대 학생회장은 "올해 1월부터 4월 인문대 체전까지 촬영한 사진들 기준으로 정했다. 그동안 각 과에서 촬영한 인문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추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각 과의 대표작 옆에 준비된 곳에 스티커를 붙여 베스트 포토상을 선정했다. 베스트 포토상을 수상한 학과 학생회에게는 5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진 전시회에서 인문대 학생들은 사진전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진을 무료로 가질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신청하면 각과 학생회장을 통해 신청한 사진을 두 장씩 받을 수 있다. 인문대 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라 학생들은 별도의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임우정 인문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어 고맙다.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 자신의 사진을 보고 나중에 20대 초반이던 대학생 시절을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나날이 수고 많다. 인문대 학생회도 2학기에 더욱 더 분발하겠다. 인문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yedcasom)을 통해 학생들과 더욱 소통하고 싶다.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학우들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성 기자 1033111@hansung.ac.kr

간주린소식

예술대학 학생회 우수소모임 선발 예정

예술대학 학생회(이하 예대)는 오는 6월 중으로 우수소모임을 선정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아람(인테리어 4) 예술대 학생회장은 "6월 4일부터 접수를 받아 기말고사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총 2팀을 선별하는데 금액은 20만원으로 두 팀 모두 같다."고 말했다.

예대 우수소모임 선정 기준에 따르면 조원이 5명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활동을 한 소모임만 지원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함께 참가한 사진 및 소모임 참가자 명단이 있어야 한다. 학과 소모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대 학생들이 만든 소모임이라면 어떤 모임이든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녀는 "예대 학생들은 과제가 많아 항상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소모임 활동까지 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현재 있는 소모임보다 더 많은 소모임이 생겨 예대 학생들끼리 친목을 다지고 예대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13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생 모집공고

한성대 대학원에서 2013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생(일반대학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20명 내외이며 6월 8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5학기 이수 예정자로서 90학점 이상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전체 모집 정원 내에서 각 학부(과)별 지원 학생의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평점 3.5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된 학생은 학부 재학 기간(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 중에 대학원 과목을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 할 수 있고, 취득학점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부 졸업학점 또는 대학원 졸업학점으로 인정된다. 단, 학부 졸업학점 및 대학원 졸업학점으로서의 중복인정은 불가하다. 학석사연계과정생의 학부 수업기간은 3.5년, 대학원의 수업기간은 1.5년이다.

이치형 대학원교과목 학석사연계과정 담당자는 "학사와 석사의 과정이 바로 연계되므로 학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학사와 석사의 과정을 따로 실시할 시 6년이 소요되지만 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우리학교 대학원생의 등록금 감면은 50%(졸업전까지 유지)이지만 학석사연계과정생의 첫학기 등록금 감면은 70%(2학기부터는 50%)이고 입학금이 면제된다."고 전했다.

방중 컴퓨터 특강 실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미래관 지하 DLC에서 컴퓨터 특강이 열린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MOS마스터 두 가지 과목이 개설되며 전문강사를 초빙해 수업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컴퓨터 활용 능력 16만원, MOS마스터 13만원으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훈련지원금으로 강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훈련지원금 절차를 간소화했다. 강의 후 교내에서 진행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다.

컴퓨터특강 담당자 김은섭(그린컴퓨터학원) 대리는 "공무원 시험이나 승진심사에서 가산점을 주고, 공기업에 취직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할 자격증들이다. 방학 중 시간을 내어 배운다면 좋은 스펙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시간대가 맞는 학우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원해 후회 없는 방학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한성프레젠테이션 대회 및 시상식 열려

지난 5월 23일 미래관 DLC에서 제6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열렸다.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 본선은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시상식은 5월 29일 11시에 총장실에서 열렸다. 시상자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 가작 9명이다. 최우수상에는 이자현(경영 11)학생이, 우수상에는 권기복(무역 09), 오수연(영문 09), 이병선(경제 06), 최의성(경제 06)학생이, 가작에는 강한규(산경 04), 김동현(경영 11), 김민성(무용 08), 김보람(무역 11), 남건호(산경 07), 박해리(한국어문 09), 임진영(지정 12), 정순천(경영 08), 한재원(행정 12)학생이 선정되었다. 상금은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20만원, 가작 10만원이다. 안정은(사고와표현) 연구원은 "활발한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뜻 깊은 행사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정란

이성우(행정학과) 교수 이 교수는 지난 5월 25일 국무총리로부터 훈장급 훈장을 수여 받았다.



▲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미래관 지하 DLC에서 '2012년 춘계 한국게임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게임의 신(新)한류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위 사진은 3인의 강연자가 발표를 마친 후 진행된 패널 토론회 당시의 모습이다.

다문화가정 아이들 한국어과정 입학식 열려

지난 6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내 미래관 DLC에서 성북구청이 후원하고 언어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이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 입학식이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과정 위원장 김정우(한국어문학부) 교수와 박선옥(한국어문학부) 전담교수, 허유경(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책임연구원과 전문강사 3명, 보조강사 2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6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총 8회에 걸쳐 실시된다. 매 수업은 읽기/말하기(40분), 쓰기(40분), 수학(30분), 종합활동(40분)으로 총 3시간동안 진행된다. 주로 영어와 수학을 교육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필독도서 중 전래동화 8작품을 선정해 수업을 준비했다.

강의는 주교사 1명과 보조교사 2명이 함께 진행해 학생들의 학습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주교사는 한국어교육학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한국어교육

에 관한 경험과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경험이 있는 교사를 선발했다. 또한 보조교사는 한국어교육학 대학원 과정을 수학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박주영(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강사는 "학생들의 읽기, 발음이 부정확한 부분을 올바르게 발음할 수 있도록 앞에서 가르쳐준다. 종합활동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고, 태권도 및 예체능분야도 교육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임 강사들은 각각의 학생들이 지난 학습장치를 파악하여 맞춤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지만 만큼 부모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이 평균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박주영 강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있어, 아이들의 정확한 수준파악이 되지 않아, 수준에 관계없이 공통적

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차후 점진적으로 보강하여,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이수빈(삼선초 1) 학생의 아버지인 이근배(공원복지관리인 54) 씨는 "아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안내를 해주어 아이를 프로그램에 참가시켰다. 이번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아이의 한국어능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용(삼선초 1) 학생의 어머니인 하승희(다문화가정 상담가 30) 씨는 "아이가 언어발달과 배움이 느려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성공적으로 수료를 하면 아이가 읽기, 말하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아이가, 좀 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1일에 수료식을 가진다.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치는 학생들에게 수료증 및 기념패를 증정할 예정이다.

김현성 기자 1033111@hansung.ac.kr

2012학년도 1학기 강의만족도 실시

2012학년도 1학기 강의만족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생들은 모두 강의만족도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만족도 자료는 향후 수업의 질적 개선이나 신규과목 개설 등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1. 강의만족도 일정

2012년 5월 29일(화) ~ 2012년 6월 27일(수) 24시간개방

2. 강의만족도대상 강좌

2012학년도 1학기 학부 전체 개설강좌를 대상으로 강의만족도를 실시하며, 학생은 강의만족도 시스템 접속후 본인이 평가해야 하는 개설 강좌목록에 대해 모두 강의만족도를 실시해야 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3. 강의만족도 평가 참여 할 경우

강의만족도를 종료한 학생은 2012년 6월 25일(월)부터 성적이 입력된 과목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

※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강의만족도 평가를 통한 강의의 질적 개선과 정확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강의평가 실시방법

- 우리대학홈페이지 (http://www.hansung.ac.kr) 접속후 강의만족도 공모란 "2012학년도 강의만족도 평가" 클릭한다.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학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다.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로그인 → 교수 → 강의평가 클릭 → 대상과목 클릭 → 평가후 저장
- 강의만족도 평가 강좌목록 화면에서 강의평가과목이 [미시시]에서 실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한다.
- 수강신청 한 모든 과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모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5. 강의만족도에 미 참여 할 경우

2012년 1학기 성적을 웹에서는 확인불가하며 우편으로만 확인이 가능함.

2012년 5월 29일

한성대학교 교무처장



편한 학식은 가라, 대세로 떠오른 학식들

저렴한 식대 · 맛있는 음식 · 깔끔한 인테리어가 강점

각 대학마다 학생식당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각 대학들의 학생식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학식이 거기서 거기'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편견이다.

최근 몇 년간, 식비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끼에 4천 원이면 충분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어려울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불황까지 겹쳐 사립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2-3천 원 선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식당이 인기를 얻고 있다. 회사원들과 일반인까지도 학생식당으로 몰려드는 상황이다.

많은 학생식당 중에서도 한국외대의 학생식당은 맛있게 손꼽힌다. 조식·중식·석식의 가격은 1천 400원에서 2천 200원 선으로 저렴하다. 학생식당의 한 쪽엔 스낵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스낵코너에서는 김밥·떡볶이·라면·토스트·순대 등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에는 팔방수도 개시했다. 한국외대 학생식당은 인근 경희대 학생들과 외부인의 방문이 잦은 편이다. 이 때문에 재학생들이 긴 줄을 기다려 식사를 하다가 강의시간에 늦기도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외대는 외부인이 학생식당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중식·석식은 2천 800원, 김밥·떡볶이·라면은 1천 500원, 순대와 면류는 2천 원이다.

한국외대의 영양사는 "우리학교 학생식당은 직영으로 운영해 이윤을 남



기지 않고 질 좋은 재료에 충실한다"고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하루 열 명의 모니터 요원이 학생식당을 이용한 후 의견을 남긴다. 충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한다."고 전했다.

안재우(국제통상 1) 학생은 "음식이 맛있고 저렴해서 자주 이용한다. 외국인 학생들도 학생식당을 자주 이용하며 음식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낸다."

고 말했다. 이어 "외부인의 학생식당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자 우리학교 학생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시립대 학생식당 또한 맛있게 손꼽혀 외부인이 몰려들고 있다. 시립대 학생식당의 강점은 바로 다양한 메뉴에 있다. 시립대 학생식당은 두 층으로 설계되어 있다. 1층은 누들코너, 백

반코너, 직화코너, 일품코너, 스낵코너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면류, 라이스류, 양식류로 이루어져 있다. 1층 식당의 식대는 500원에서 2천 800원선이고, 2층 식당의 식대는 3천 원에서 5천 500원 선이다.

성승근(세무 2)학생은 "우리학교 학생식당 1층은 음식의 양이 충분해서 좋다"며 "2층 식당은 양이 적지만 메뉴가 다양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 즐겨먹는 음식은 '웹버거'다. 가격대비 맛이 좋고 우리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 학생식당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반찬·밥·국에 날개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려대 학생식당은 한식, 양식, 분식과 간단한 음료 및 간식식품을 판매한다.

박지은(생명공학 3)학생은 학생식당을 자주 이용한다고 이야기하며 "가격이 날개로 책정된 것에 대해 만족한다. 하지만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음식을 고르기가 힘들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전부 다 고르면 가격이 경종 뛰어들어온다."고 말했다.

이화여대의 학생식당은 간간한 여대생의 입맛에 맞춰 '단호박롤카츠', '미소라면', '돈부리' 등 다른 대학교와 차별화된 음식을 판매한다. 여학생들의 필수코스인 디저트를 위한 쉐라도 별도 마련되어 있다. 학생식당 식대는 역시 저렴한 1천 500원에서 3천 원 선이다.

공미희 기자 kong@hansung.ac.kr

등·식·주

<등·식·주>는 대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3대 비영인 등록금, 식비, 주거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코너입니다.

계절학기 비용 부담에 대학생들 좌절

<계절학기 비용 조사>

연대	110,000원	상명대	74,000원
고대	109,000원	외대	74,000원
서강대	98,000원	광운대	70,000원
성균관대	91,000원	한성대	70,000원
중앙대	90,000원	가톨릭대	65,000원
한양대	87,000원	동덕여대	65,000원
건국대	85,000원	성신여대	65,000원
홍익대	80,000원	세종대	65,000원
서울여대	75,300원	시립대	35,000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1학년 기준)

대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인턴 경험, 자격증·토익점수 취득, 각종 대외활동 등에 매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심지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를 하는 학생도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학교에 남아 계절학기를 듣는 학생도 적지 않다.

학생들이 계절학기를 듣는 이유는 ▲미리 학점을 따놓기 위해 ▲학점이 낮은 과목을 재수강하기 위해 ▲졸업학점이 모자라서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등으로 나타났다. 보통 1과목에서 3과목을 듣는데 1학기 기준 계절학기 비용이 7만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3학기짜리 전공 1과목을 들더라도 21만원이나 부담하게 된다.

학기중에는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다 방학 중에 한숨 뿜릴 수 있으

리라 기대했던 대학생들이 계절학기 비용에 대해 또 다시 부담감을 느껴야만 하는 상황이다.

박지은(고려대 생명공학 3)학생은 이번 학기에 계절학기를 들지 않겠지만 졸업 전까지 계절학기를 한 번 정도는 들을 예정이라며 "계절학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4학년때 수업을 많이 듣는 게 힘들어서 계절학기를 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비용이 더 오른다면 계절학기 수강을 포기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계절학기 비용으로 친구들과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시립대처럼 계절학기 비용이 3만 5천원선까지 내려가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학교 계절학기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만 인하해도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기룡(한성대 무역 3)학생은 이번 계절학기에 전공 1과목과 교양 1과목을 들을 계획이다. 그는 "계절학기 비용이 벌써부터 부담된다. 여름방학때 학원을 다니고 싶었지만 계절학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렵게 됐다."고 전하며 "연대와 계절학기 비용을 비교하면 우리학교 계절학기 비용이 저렴하게 느껴지지만, 시립대와 비교를 하면 쓸쓸해진다. 정부지원이 많은 시립대가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계절학기의 적정비용을 5만 원선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계절학기의 비용이 인하되고, 개설과목이 좀 더 다양화된다면 앞으로도 계절학기를 수강할 것 같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공미희 기자 kong@hansung.ac.kr

태대학 옛보기

학생과 교수의 벽을 허무는 신입생 중점 세미나

가천대학교는 작년부터 신입생전체를 대상으로 한 '신입생 중점 세미나'를 필수교양과목으로 개설했다. 이 수업은 각 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이 신입생들을 배정받아 10~20명이 한 그룹을 이루게 된다. 교수들은 대학 생활에 생소한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과의 특성, 수업진행방식, 진로상담,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각 과의 특성에 따라 커리큘럼이 구성되며, 이 때 정해진 교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전임교수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

매주 한 시간씩 세미나가 진행되며, 수업의 내용은 각 과의 특성과 교수의 재량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된다.

정자현(가천대 자율전공 1) 학생은 "자율전공 학부이므로 신입생 중점 세

미나 시간에 교수님들이 2학년 때 진학할 학부에 대해 설명해주신다. 이를 통해 관심 있는 학부에 대해 알아갈 수 있고,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핵심 선정해서 독후감을 발표하고, 학생이 가고 싶은 답사지를 조사해서 답사를 다녀오는 등 다양한 내용의 수업이 진행돼 흥미를 잃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수업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이다영(가천대 조경학과 2) 학생은 "세미나 시간에 교수님이 PPT를 준비해 오셔서 조경학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해주셨고, 관련 자료도 보여주셨다. 내가 선택한 전공이지만 아직은 조경이라는 분야가 약간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 수업을 통해 전공에 좀더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어떠한 일

을 하는지 알아가갈 수 있어서 뜻깊은 수업인 것 같다."며 수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공 관련 상담뿐 아니라 개인면담 시간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이 과에 어떤 계기로 진학하게 된 것인지 등 개인적인 상담도 많이 해주신다. 이런 대화를 통해 교수님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교수와 제자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수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권태훈(가천대 도시계획학과 1) 학생은 "우리 그룹은 신입생 중점 세미나 시간에 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지난 10월 10일 서울로 한복마음을 방문했는데 보도블럭이 왜 울퉁불퉁한지, 건축물이 도시계획적으로 어떠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교실에서 이론적으로만 학습하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니 더욱 재미있었고 마음에 와 닿았다."며 수업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소규모로 구성된 그룹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한 명 한 명 다 신경써 줄 수 있어서 좋다.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진로를 원하는 지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나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님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최중훈(가천대학교 교무지원팀) 씨는 "신입생 중점 세미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같다. 교수님들과의 친목을 다질 수 도 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어 좋다."고 수업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김현범 jounkim@hansung.ac.kr

대학언론의 눈

스마트폰에게 사용당하는 사람들



을 이용한 신종사기가 급증하는 등 스마트폰의 허점을 노린 부정적 측면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 중독' 문제일 것이다. 일반 휴대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휴대전화 자료를 보면 위험성을 우려한 시선이 많았다.

하물며 많은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대전화보다 훨씬 그 중독 증상이 심각할 뿐 아니라 중독으로 빠질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은 흔히 알려진 인터넷 중독보다 더욱 심각하다. 실제 지난 3월 행안부 발표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률은 8.4%로 인터넷 중독률 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부정적 기능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10대와 20대는 첨단화 시대의 문명

을 빠르게 흡수하는 세대로 스마트폰 중독 또한 세대 중 가장 높다. 행안부 발표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률이 10대는 11.4%, 20대는 10.4%로 3·40대 보다 크게는 세 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10대들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듯 청소년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만, 20대는 특별한 제지가 없어 중독을 예방하기 더욱 곤란하다. 20대의 중독률이 10대보다 낮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매우 통계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률은 8.4%로 인터넷 중독률 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부정적 기능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10대와 20대는 첨단화 시대의 문명

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카페에서 친구와 한 테이블에 앉아 있음에도 대화 없이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것은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길을 걸어가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 도서관 혹은 강의실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길에서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 때문에 단절된 대화는 사람을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으로 만든다. 바로 앞의 친구와 대화하지 않고 '카톡'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모순적이다.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똑똑한 친구, 스마트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과 단절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스마트한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대학교신문사 편집국장 유은영

2012년 동미참 (이월) 1차 보충 훈련 공지

1. 일시

2012년 6월 27일(수) ~ 6월29일(금), 09:00~18:00(8H)

* 개인별 훈련 일자 및 시간 : 한성공지 첨부파일 참조 (성명 순 및 군번으로 확인) 소집통지서 확인(개인email 발송)

2. 장소

덕릉예비군훈련장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당고개 소재)

3. 훈련대상

한성대학교(원) 학생예비군 중 동미참훈련 불참 및 미이수자

4. 행정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복장 : 규정한 예비군복장 착용(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및 버클, 고무링)
- 09:00까지 입소, 지각할시 (09:30이전 입소자) 추가교육 1시간
- 09:30 이후 도착 시 입소불가하며 무단불참 시 고발조치 됨
- 문의전화 : 02-760-4176, 010-5075-6553 (예비군연대 : 우촌관 608호) /02-934-8764~5(교환) 1대대 동원과 연결 요청

5. 기타

- 대중교통 이용 : "전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건너편"에서 시내버스33번, 33-1번, 10-5 번 승차 당고개 덕릉예비군훈련장 하차 / 입소
- 자가 차량 이용 시 : 삼선교 → 미아리교개 → 드림랜드 → 당고개역 → 덕릉예비군훈련장
- 훈련기간 학교 수업 출석 인정 등에 확인 필요시 개인별 학교 예비군연대(우촌관 608호, 전화 02-760-4176)에 방문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 지참하여 훈련에 참가할 것. (개인 e-mail 우선 확인)

- * 훈련 무단불참 시 불이익을 받으며 개인별 훈련일자 및 시간은 한성공지 첨부파일에 성명 및 군번으로 확인하여 참석 바람.
- * 단 전입신고를 미 실시한 대학교(원)예비군대원은 한성대학교 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람. 전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 지지 않음.

예비군연대

디아블로3의 출시와 악마의 게임들

'게임에 빠진 성인들, 현실적 통제방안 없어'

지난 5월 15일 디아블로3가 출시되었다. 디아블로는 미국 게임회사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 시리즈 중 하나이다. 디아블로2를 즐겨하던 사람들은 12년 만에 나온 후속작의 한 정판을 사기위해 왕십리 비트플렉스 쇼핑몰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었다. '행사장에서 새 치기를 하면 칼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성 글을 게시한 이모씨를 성동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하는 등의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다. 한정판 4천 개는 금새 동이 났고 한정판을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디아블로 일반판을 사서 밤을 새며 게임을 했다. 그 뒤 6시간 만에 한국에서 디아블로3의 최종보스를 잡았다는 얘기가 화제로 떠올랐다. 블리자드의 개발진은 디아블로3를 클리어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한국의 게이머들은 6시간 만에 클리어했다.



▲ 최근 출시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디아블로 3.

디아블로3만큼 사람들을 중독시킨다는 악마의 게임들이 있다. 이들을 '세계 3대 악마의 게임'이라고 칭한다. 그것은 바로 '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풋볼매니저', '문명'이다. 이 게임 중 하나인 '문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중독성으로 유명하다. '문명'은 플레이어가 직접 문명을 발생시킨 다음 번성시켜나가는 게임이다.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문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문명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명'을 시작한 뒤 다음날 군인대만 남친이 제대를 한다', '고3이 디아블로를 하면 바로 재

수(再)働' 등 게임이 지닌 중독성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 말들이 인터넷에 떠돈다. 악마의 게임 중 하나인 '풋볼매니저'는 직접 선수들을 조종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영입해서 관리를 하는 게임이다. '풋볼매니저'를 했던 박건태(경명 1) 학생은 "원래 축구를 좋아했다. 플레이하는 것보다 전략을 짜는 게 재밌어서 4년 정도 하고

있었다"며 '풋볼매니저'가 지니는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렇듯 온라인 게임은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부분을 대리만족을 통해 채워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상의 도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사회 시뮬레이션 게임인 '심즈'가 그 예이다. 이 게임은 자신의 분신인 심즈를 만들어 다른 캐릭터와 결혼을 하거나 옆동네 주민과 친구가 되는

등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재현한다.

문제는 가상의 공간에서 느끼는 대리만족 때문에 정작 자신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온라인 게임에 빠져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점들이 많다.

예를 들어 2008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부부가 매일 12시간씩 게임에 빠져 있다가 어린 딸에게 분유를 하루에 한 번 밖에 주지 않고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어떤 이는 미국의 한 주립대학교를 중퇴하고 한국으로 귀국해 게임에 빠져 있다가 게임의 잔상에 빠져 "제일 처음 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며 가장 먼저 눈에 띈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목지마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같은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의 경각심이나 사회의 인식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만 쏠려 있을 뿐 성인들의 게임 중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김현우(게임예방중독지원센터) 소장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통계는 부모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비교적 통제하기 쉽지만 게임에 중독된 성인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진수 기자 dwish@hansung.ac.kr

■ 환경에세이

공장식 축산과 채식

지난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뒤 11개 시·도, 75개 시·군·구 전국적으로 거침없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소와 돼지 등 347만여 마리가 생매장 등 살처분 됐고, 구제역 매몰지는 전국 4천 782곳에 이르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2011년 3월 24일 정부는 구제역이 마무리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그 해 4월 20일 경북 영천 농가에서 일부 돼지 감염으로 마침내 구제역은 진정국면으로 들어섰다. 사상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구제역 파동의 원인은 정부의 초기 방역실패였다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육식위주 식단과 공장식 밀집 사육방식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생산성만 강조한 밀집성 높은 사육방식은 구제역과 같은 대규모 가족 전염병의 전파속도를 급속도로 높였다는 주장이다.

살아있는 동물을 생매장해 국민적 저항을 일으킨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채식이었다. 채식은 채식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구제역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목격한 국민들은 건강에 좋은 채식을 선택했다. 채식으로 육류소비를 줄일 수 있고, 공장식 밀집 사육방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민의 의지였다.

국민이 선택한 채식의 어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채식이 좋은 점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체 질병 사망자의 71.5%인 2천 775만 명이 육식과 관련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심장질환환자의 85%, 전염병 사망자의 61%, 암 사망자의 60%, 당뇨병 사망자의 50%가 육식과 관련한 사망이라는 것이다.

18세기 전까지는 채식위주였던 식단이 산업혁명과 더불어 약 2세기동안 식습관이 급변하면서 육식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각종 질병이 늘어났다고 한다. 인간의 몸은 아

직까지 채식에 맞춰져 있다. 인간의 장기는 침팬지의 장기와 비슷하고, 침팬지의 먹이는 90% 이상이 식물성이다.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채식위주의 식이요법을 실시한 결과 체중과 콜레스테롤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82%가 관상동맥 협착이 줄어들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식 보다는 채식이 강조되고 있고, 아토피 환자들에게 채식은 서울에서도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두 번째는 동물복지다.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은 동물의 면역을 저하시킨다. 닭은 움직일 수 없고, 돼지는 하루에 100걸음도 걸을 수 없다. 이들은 도살될 때 전인한 방법을 동원해 비참하게 죽는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다. 통상적으로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풀 10~15kg이 필요하며 물은 20L가 필요하다. 에너지로 환산시켰을 때 비효율적이다. 만약 지구상에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인간이 80을 섭취하는 문제다. 더욱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축산업의 인위적인 지구온난화 유발요인은 운송업(약 15%)보다 높은 18%이다.

채식은 인간의 몸에 완전히 적합할 뿐 아니라, 환경적이면서도 동물 복지적이기 때문에 육식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육식의 문제는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이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

▶▶▶ 샘들과 함께하는 생각 바꾸보기

중국 불법어업, 강경한 대처가 필요

요 근래 서해안에는 중국 불법어선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영역 안까지 들어와서 조업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들의 범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단화되었고 점점 지능화 되었으며 그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불법어선은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 나갈 수 없는 산란기나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날에 더욱더 기세를 부린다. 이들은 우리나라 어민의 조업량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어장에 설치한 그물을 끊어 버려 어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등 한국 어장을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 불법어선들이 우리나라 해역의 인도조차 무시하고 조업을 계속하거나 나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 해지면서 우리나라 해경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결국 며칠 전에는 중국의 불법어선에 대해 대책이 강구되어 범급이 가중되었고, 관리단속인원이 늘었다. 이로써 중국의 불법어선이 줄기는 하였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임시 방지

책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관리단속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당국의 협조와 단속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불법어선 나포과정에서 우리나라 해경이 순직했을 때도 중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단지 우리나라 조업기간에 그 수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기간을 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재 중국의 불법 어업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그럼 왜 중국은 이들을 방지하는 것인가? 중국의 이러한 일면에는 중화사상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

중국은 과거부터 광활한 영토와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조공을 받고 하사품을 주는 조공외교의 형태로 아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생각 속에는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며 다른 민족은 문화나 다른 면에서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라는 중화사상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 사상은 청나라 시기까지 계속 되었으며 서양열강과 일본의 침략으로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중국이 주권을 회복하고 근래에 점점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게 되면서 이러한 중화사상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다. 결국 이것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어 자국민을 옹호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현재 중국의 정책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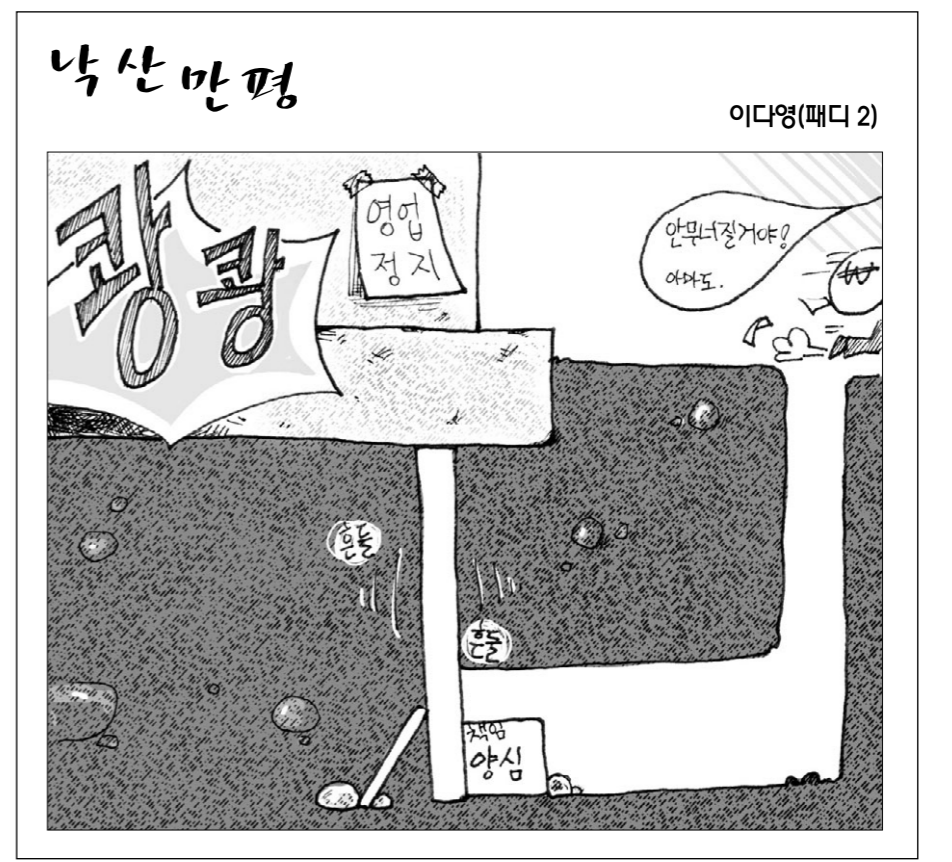
하지만 이렇게 중화사상으로 물든 정적으로 인해 주변국들은 상당 정도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중국의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과 국가의 태도는 후에 중국이 세계적으로 진출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모든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가다면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한걸음 퇴보를 하는 것이라 본다.

중국의 불법어선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현재는 우월한 국력과 경제규모로 자신들의 위치가 다른 나라들보다 대단해 보일지라도 중국당국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게 중화사상적인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후일에는 결국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스스로 좁혀나가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불법어업문제 때문에 낱말이 피해를 보고 있는 서해안 어민들에게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그저 단속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외교적인 노력을 수반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국력을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 어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내부의 태도 또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저평가되어 있는 대한(對韓) 인식을 바꾸려는 우리나라의 노력과 중국당국의 적극적인 대처, 철저한 관리단속만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박동현(역사 2) 동아리 샘들 회원



Hansung 졸업생 찾기 캠페인

'짱가' 프로젝트...?♡♡

어디선가...누군가에...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만 주세요.
바로 달려갑니다...!! 짱가...!!

지금 혹시... 내 책상 서랍 깊숙히...아무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그리운 동문의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혹시... 내 수첩 귀퉁이 어딘가에... 다급히 흘러 쓴 낯선 글씨 속에 그리운 그녀 또는 그 사람의 연락처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혹시... 내 핸드폰 속에... 감히 용기내어 버튼을 누를 수조차 없는 그리운 그 시절 친구들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 추억의 한 부분을 <짱가>에게 알려만 주신다면... 어디든지 단숨에 달려가 그리운 추억 한 자락을 <한성의 울타리> 속으로 찾아 오겠습니다.

한성 졸업생 찾기 본부 짱가 프로젝트
02) 760-4261 기획전략팀/ 02) 760-4266 대화협력팀

****<졸업생 찾기>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소정의 학교 기념품을 드립니다.**

갑자기 두근두근, 혹시 당신도 부정맥?

부정맥의 증상과 그에 따른 치료법

12년 전 이맘때, LG와 롯데의 경기가 있었다. 경기 2회 초, 2루수에 있던 롯데의 임수혁 선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임수혁 선수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0년 가까이 의식을 잃은 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결국 2010년 2월 사망했다.

축구선수 파브리스 무암바는 올해 3월 17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FA컵의 불턴과 토트넘의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경기 도중 쓰러지는 무암바의 모습은 세계 각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 그 뒤 3일 만에 무암바는 기적같이 깨어났다.

이 두 운동선수가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진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심장질환 중 하나인 '부정맥'이다. 심장은 일정한 간격의 전기 신호에 맞춰 분당 60~100회 뛰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부정맥은 심장을 뛰게 하는 전기신호의 체계에 혼란이 와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빈맥, 천천히 뛰는 것을 서맥이라고 한다. 부정맥은 서맥성 부정맥과 빈맥성 부정맥이 있다. 서맥성 부정맥은 심장이 분당 60회 이하로 뛰는 것을 말하고, 빈맥성 부정맥은 심장이 분당 100회 이상으로 뛰는 것을 말한다.

서맥성 부정맥은 맥이 느리기 때문에 활동을 할 때 심장박동 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무거운 느낌을 받는다. 심할 경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쓰러질 수 있다.

빈맥성 부정맥은 화가 나거나 긴장된 상태가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심장 박동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고 호흡이 곤

란해진다면 빈맥성 부정맥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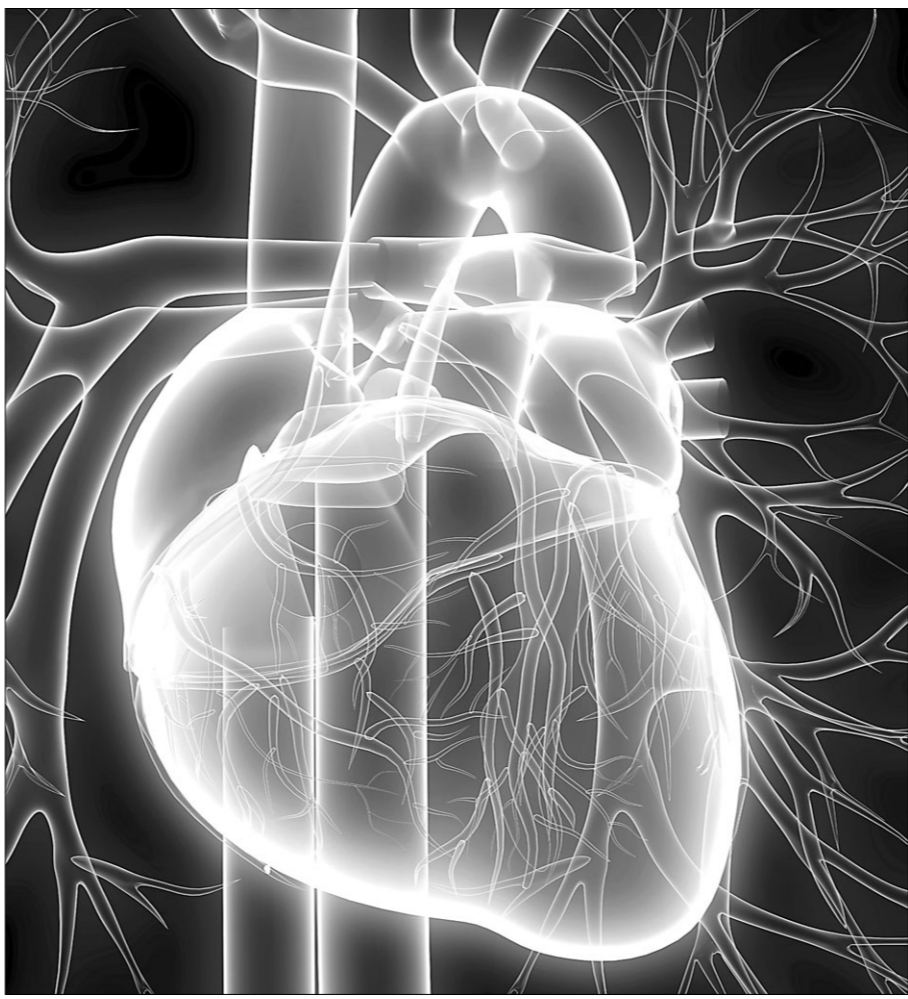
부정맥을 알아내는 검사로는 심전도 검사와 24시간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가 있다. 심전도 검사는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알코올로 분비물을 제거한 뒤 양팔목, 양손목과 가슴부위 6곳에 전극을 부착해서 하는 검사이다.

24시간 심전도 검사는 기존의 심전도 검사에서 양팔목과 양손목을 제외하고 가슴부위에만 전극을 부착한 뒤 24시간 동안 의료기기를 차고 하는 검사이다. 앞드리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면 의료 기기에 충격을 가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운동부하 검사는 몸에 6개의 전극을 부착한 뒤 경사운동을 할 수 있는 런닝 머신에서 운동을 하며 받는다. 환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질 경우를 대비해서 주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으니 환자는 걱정 없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정맥의 치료법은 부정맥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부정맥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약물치료나 외과수술로 부정맥을 치료한다. 빈맥성 부정맥은 제세동기를 심장에 투입해서 전기쇼크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서맥성 부정맥은 인공 심박동기로 전기신호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치료하는 방식의 외과수술을 사용한다.

부정맥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 중 스트레스, 환경의 변화, 과음, 불면증, 카페인 다량섭취,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 대표적이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심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최육근 교



수(서울대학교병원)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종환 임수혁 선수가 살아있는 무암바 선수의 차이는 '4분'이다. 4분 내에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받은 무암바 선수는 살아서 우리 곁에 돌아왔고 10분 뒤 응급처치를 받

은 임수혁 선수는 10년간의 식물인간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부정맥이 심장 마비로 이어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통해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주위에 부정맥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숙지해 둘 것을 권장한다.

이진수 기자 alwsl@hansung.ac.kr

■ 여인천하

조선에도 걸그룹이 있었다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삼호정 시단(詩壇)

어느 사회건 무언가에 열광하는 시대가 있다. 조선후기는 시와 노래에 열광했던 시대이다. 사대부는 물론 중인, 평민, 천민에 이르기까지 시를 읊을 줄 아는 것이 멋이더니, '송석원시사', '비연시사' 등 평민들의 시화가 생겨났다. 당시 특보적으로 존재했던 여성시단이 있었으니, 바로 삼호정 시단이다.

윤산 강가 삼호정이라는 정자에 모였던 다섯 명의 여성들. 그들의 면면이 김금원의 <호동서락가>에 소개되어있다. 이들은 모두 양반의 소실이었고 기생이거나 서녀 출신이었다. 그녀들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딛고 시적 재능을 펼쳤다. 그동안 남성들의 시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기녀시인들의 한계를 벗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사회를 열었던 것이다.

때때로 모여 시를 주고받는 이가 네 사람 있다. 하나는 '윤조'라 하는데 성천 사람이고 열천 김상서의 소실이다. 재주가 매우 뛰어나 시로 크게 알려졌다. 자주 이곳을 찾아오곤 하는데 어떤 때는 이틀씩 묵기도 한다. 또한 사람은 '경산'으로, 문화 사람이며 화사 이상서의 소실이다. 학문과 식견이 넓고 시에 능했다. 마침 이곳에 살고 있어서 자주 찾아온다. 또 한사람은 '죽서'인데, 같은 고향 사람으로 송호 서태수의 소실이다. 재기가 빼어나고 지체로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문장은 한유와 소식

을 따랐으니 시 또한 기이하고 예스럽다. 마지막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아우 '경춘'이니 주천 홍태수의 소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체로우며 단정할 뿐만 아니라 널리 경사에 통달하였다. 시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호동서락가> 중에서

김금원은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는 인물로, 14세에 남장을 하고 금강산 기행을 떠나기도 했던 당찬 여성이다. 금원을 비롯해 윤조의 <부용집>이나 <윤조당시고>, 죽서의 <죽서시집> 등이 전해질 정도로 삼호정의 멤버들은 실력이 있었고 당시에도 잘 알려진 유명인이었다.

조선 후기 사회가 변성한 것치고 여성 사회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양반 여인들이 유교적 규범에 더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직적인 동호회 활동은 커녕 자신의 이름으로 문집을 남기기도 어려운 현실이었다. 시의 소재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에 비하면 기녀나 소실 여성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 있었기에 좋은 시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1868~1945는 「조선여속고」에서 "시사(詩詞)의 우열을 평한다면, 교방기녀의 시가 사족첩실의 시사보다 낫고, 사족첩실의 시사가 사족부녀의 시사보다 나으니, 그 처한 경지에 따라 감정과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평하였다.

1800년(철종 1) 34세의 금원은 기행문인 <호동서락가>를 완성하고 삼호정 동인들에게 읽힌 뒤 후기이자 추천서를 받아 함께 살았다. 명망 있는 사대부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서문이나 발문을 부탁하지 않은 것은 그녀들의 자존심을 보여준다. 그 시대 서얼이나 중인 남성들이 시문집을 낼 때 유명 사대부의 품평을 받으려 다닌 것에 비하면 얼마나 독립적인가! 모임은 비록 오래가지 못했지만 조선 시대 유일한 여성시단으로 남아 여성들만의 끈끈한 자매애를 보여주고 있다.

최선경(문화유산콘텐츠 기획자)

■ 서평-파워블로거의 지식충전, 감성충전

그럼에도 꿈을 꾸는 울보 시인의 투쟁사

「꿈꾸는 자 잡혀간다」 / 송경동 지음 / 실천문학사



이소중 필명 '앨리스'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alisso.blog.me)

책을 몇 번 손에서 놓쳐버렸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무게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은 처음이었다. 전태일 평전을 처음 읽었을 때의 기분이 들었다. 작가는 "갑진숙의 글이 제2의 전태일 평전 같다" 했지만 나에게겐 바로 이 책이 제2의 전태일 평전이었다. 아주 미안하게도, 난 그들을 보며 긍정적

인 생각만 한 것은 아니었다. '굳이 저렇게 해야 하나',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난 그런 모질고도 모자란 생각들을 해 버렸고 이 책을 보며 알았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날이 선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그들은 자신들이 죽은 열사들을 죽인 자라며 비통해했다. 같이 투쟁하고 같이 희망을 꿈꿨음에도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음에 자신들이 그들을 죽였다 했다. 그렇다면 그에 무지했던 나는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난 그들의 시체에 몇 번이고 확인 사살한 잔인 무도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문화를 나를 경허하게 만든다. 그들을 무자비하게 확인 사살했다는 사실에 마음을 다친 나는 그래도 문학을 아주 많이 사랑해서 다행이라고 자기 위안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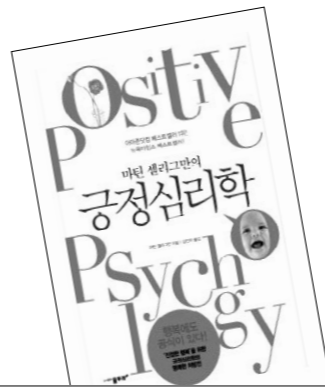
작가의 글은 투박하지만 진정성이 담겨있고 그래서 아름답다. 유행처럼 번지는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이런 글에나 어울릴 수 있

는 말이다. 사회에 대한 개인의 끝없는 투쟁으로 생긴 상처가 글로 되살아나고 그 글이 독자의 마음에 다시 한 번 새겨지며 눈물 짓게 할 때 비로소 진정성은 완성되는 것이다. 마음이 아파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었다. 어려운 책은 아니었지만 한 장 한 장 힘이 들었다. 종이가 담고 있는 텍스트가 이렇게 날카롭고도 따뜻할 수 있는 것이 새삼 놀라웠다.

'모두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이 책은 한 개인의 투쟁사이다. 하지만 개인의 투쟁은 사회의 구조와, 세상의 모순과 연결되지 않을 리가 없다. 한 개인의 투쟁사를 통해 하나의 사회의 구조를 보았고, 그 구조가 얽혀있는 세상의 모순을 보았다. 그것을 본 순간, 나 역시 피해자이고 동시에 가해자임을 알았고 끝없는 반민과 자기방성을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이 쉽지 않은, 마음을 몇 번씩 활짝고 지나가는 글들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권하게 될 것만 같다.

행복을 부르는 희망의 메시지

「긍정심리학」 / 마틴 셀리그만 지음 / 물푸레



윤종현 필명 '꽃다지'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myplanup)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위, 전세계 국가 중에서는 100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 12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로 봤을 때 매우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이다.

물질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만큼 낮다는 것은, 행복의 척도가 반드시 물질적인 부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

「긍정심리학」은 진정한 행복을 만들기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동안 정신치료를 주 대상으로 삼았던 학계에 반론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연구를 제시한다. 또한 사전 예방을 증시하는 연구방법론으로 인간 본성의 긍정성을 부각시킨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 책을 통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선성설을 되살리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품성을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의 핵심 개념으로 부활시킨다. 그리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그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과 미덕을 되살려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을 강조한다. 긍정심리학은 이렇게 개인이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물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개인의 능력에만 맡겨둘 수 있는나쁜 문제는 아니다. 긍정심리학이 부정했던 후천적 환경 요인 또한 아예 무시할 수만은 없다. 외부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러한 환경을 함께 개선해 나갈 때 개인과 집단의 행복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래나고자 노력하는 개인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확산되어 나갈 때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 또한 높아지고, 이로써 우리사회 또한 더욱 건전해지리라 믿는다.

「한성 권장도서 66선 선정」

제2회 독서경진대회

「한성 권장도서 66선」 읽기를 장려하고자 제2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책 읽는 즐거움과 함께 한성인의 꿈을 키울 기회가 될 독서경진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

- 응시 자격 : 한성대 재학생(학부생)
- 접수 기간 : 2012년 9월 12일(수) ~ 10월 12일(금) (접수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대회 개최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오후 4시
- 대회 개최 장소 : 학술정보관 일반열람실 5층 (제3열람실)
- 수상자 발표 : 2012년 11월 14일(수)
- 시상식 : 2012년 11월말 예정

◆ 세부 내용

- 출제 범위 : 한성 권장도서 66선 중 「지정도서 6선」에서 출제
- 시험 유형 : 주관식 단답형 40문제 (외 서술형 1문제)
- 지정도서 6선

NO.	서명	저자	NO.	서명	저자
1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4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2	파우스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5	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3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	6	괴짜경제학	스티븐 레빗

◆ 시상

- 대 상 1명 : 상장 및 부상(40만원 상당)
-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 우수상 2명 : 상장 및 부상(10만원 상당)
- 장려상 3명 : 상장 및 부상(5만원 상당)
-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배너 참조

- 「한성 권장도서 66선」 목록
- 「시험 유형 예시 문제」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

※ 위 일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회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휴식"

서희정 (부역 3)

수상소감



서희정 (부역 3)

사진은 라틴어 어원 phos(빛)과 graphos(그리다)가 합쳐진 말로 '빛을 그리다'라는 말이라고 한다. 이 사진을 찍은 곳은 홍제동 개미마을이다. 벽화가 예쁜 동네라는 말을 듣고 사진기 하나 들고 찾아갔다. 홍제동은 이제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동네가 되어버린, TV 프로그램이나 어른들 이야기로만 접할 수 있었던 달동네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연탄이 동네 곳곳에 쌓여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은 구멍가게에 모여 얘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집 앞 마당에 걸린 빨래들 사이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옛날 서울의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네 벽면, 계단 곳곳에 그려진 그림들은 요즘 서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네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진을 취미생활로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다. 처음에는 조리개가 뭐지, 셔터스피드가 뭐지 아무것도 모르고 DSLR 카메라의 자동모드로 찍고 다녔었다.

하지만 이내 어두운 곳에서 흔들린 사진을 찍게 되면서 조리개, 셔터스피드 등 노출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서적들을 탐날 때마다 찾아 읽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이제야 '빛을 그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카메라는 빛을 담는 작업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당연히 빛이 있어야 카메라가 작동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빛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사진이란 것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즐거움이 사진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취미 생활이라 그리 깊게 카메라에 대해 탐구해보지는 못했기에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좀 더 카메라 공부에 심취해 보고 싶은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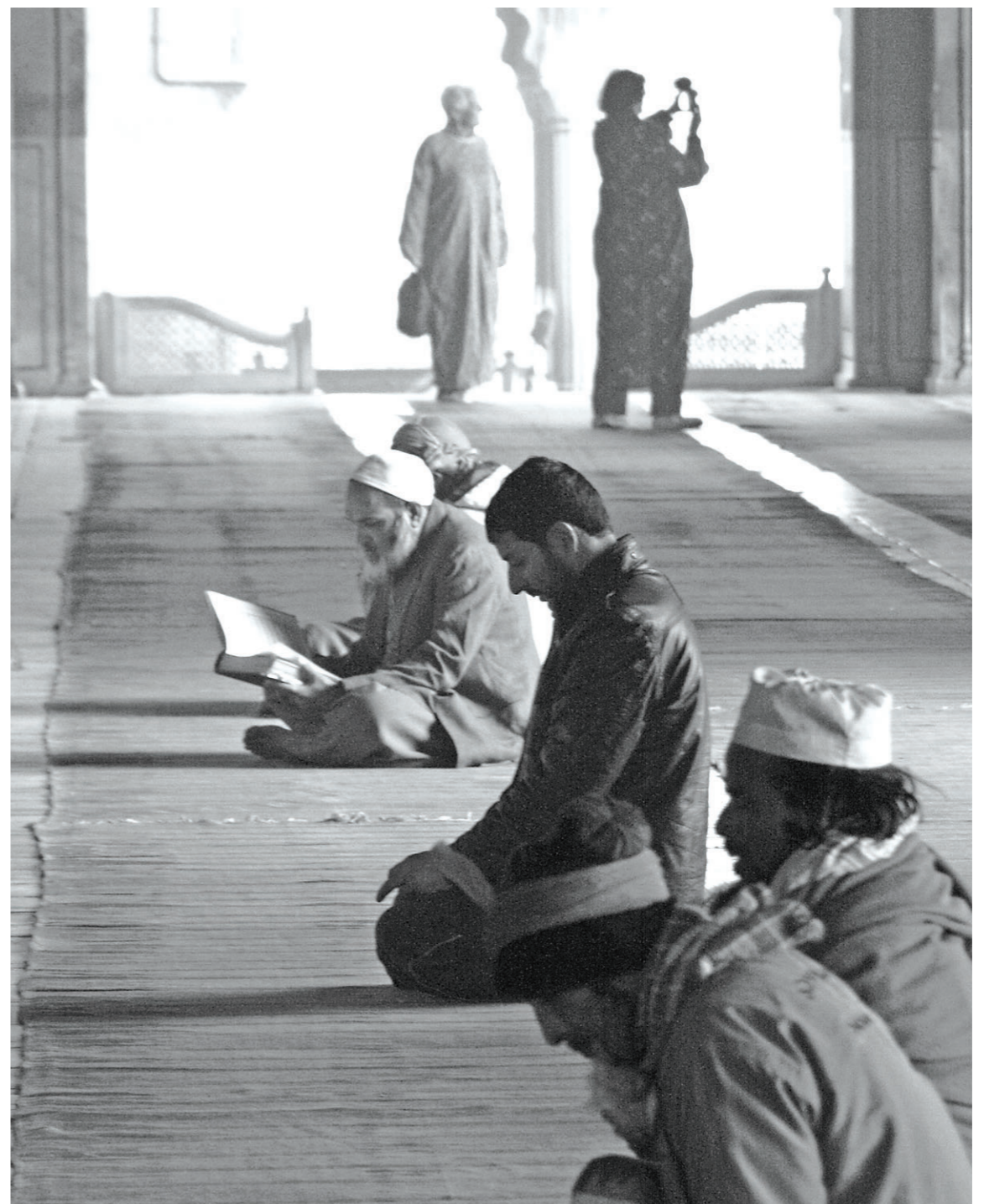
오후 3~4시의 빛이 만들어진 홍제동 개미마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고, 벽화가 있는 거리를 벗어나서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어느 순간 벽에 걸린 빨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묻어있는 바지와 어깨가 처진 셔츠들이 햇빛을 받으며 나란히 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때 제일 처음 생각난 건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아빠의 모습이었다.

벽에 걸려 편안히 쉬고 있는 빨래들의 모습에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카메라 셔터 위에 손가락을 올렸고 곧이어 '찰칵' 하고 카메라 특유의 셔터음이 울렸다. 그 순간 모든 게 정지된 느낌이었다. 햇빛을 통해 카메라로... 이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햇빛과 카메라가 만들어준 모습에 손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좋은 사진을 찍게 되었다. 그리고 상도 받게 되었다. 더욱이 모교에서 받는 첫 상이라 나에게 더욱 의미가 깊은 상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 삶의 무게"

노은영 (부역 3)



"기도"

강동현 (지정 2)



가작 "소통"

임선희 (한국어문 4)

수상소감



임선희 (한국어문 4)

추억에 의존해 살아가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은 추억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하는 것 같다. 이 사진은 지난 1월 인도여행하며 찍은 사진이다. 사진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 컴퓨터에 있는 여행사진을 뒤적거리다가 문득 그때의 내 모습이 생각나서 즐거웠다. 사진의 배경은 인도 서부 우다이푸르(Udaipur) 관광지다. 당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힘없이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우연히 이 사진을 찍게 되었다. 사람이 꽤 많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속에는 한 사람만이 덩그러니 찍혀있어, 나중에 그것을 보고 꽤나 신기해했던 기억이 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진 속의 아이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을 것이다. 한 달 간 인도를 배낭여행하면서 '사람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되었다. 소통을 통해 현지인과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행 처음에는 길을 몰라도 인도인에게 묻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하면서 그들과 소통하기를 거부했다. 당연히 심심하고 의심이 가득 찬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는 내가 너무 오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세상에 나를 들여보내 주었는데, 나는 나만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 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날 이후로 조금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난 후부터 과일가게 아저씨와 농담을 나누고, 짜이가게 아저씨와 짜이 맛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인도 전통 세밀화를 가르쳐준 선생님과는 한국과 인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여행이 점점 즐거워졌고, 자연히 인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들과 가졌던 '소통' 으로 인해 인도 여행은 가장 소중한 기억의 한 부분이 되었다.

졸업을 앞두고, 해외파견직으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근무를 앞두고, 이 사진의 수상으로 소통하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정말 좋았다.



"볼리비아-우유니 사막투어 중" 박정현 (매디 4)



"세월" 형인호 (경영 3)



"아이들의 미소" 국진선 (인테리어 4)

심사평



이홍석 LEE HONG SEOK
1968 서울

- 출판
 - 2011 여행사진의 아우라 / 시공사
 - 2009 슈퍼라이터 / 시공사(共著)
 - 2009 포토에세이 "몽중인" / 비우하우스
 - 2006 포토에세이 "카메라를 던져라" / 푸른숲(共著)
- 방송
 - 2011 부산 KBS / TV 문화속으로, 우울의 해부展 소개
 - 2011 아리랑 TV / 100 Icons of Korean Culture
 - 2010 EBS / 세계테마기행 미크로네시아(4부작)
- 활동
 - 국제날개달기운동본부 홍보대사 SWOC Honorary Ambassador (No. 11-09)
 - Member Of The National Geographic Society
 - 2011 문화체육관광부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 2012 국토해양부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 현대카드 여행사진클래스 강연
- 연락처
 - www.leehongseok.com
 - lifeangler@naver.com

사진은 소통이다. 소통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으로의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향으로 서로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간혹 아마추어의 사진이 작품이나 예술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면 정작 이런 소통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포기할 때가 있다. 이런 프로작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지만, 이런 맥락에서 한성대 사진공모전에 출품된 학생들의 사진을 심사하며 솔직한 시선과 다양한 시도 그리고 가감 없는 소통을 보여 심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운 감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수상작을 뽑는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 모두에게 최우수상을 돌리고 싶었던 마음을 먼저 밝혀둔다.

사진은 현실에 존재했던 어느 한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이루어졌던 이미지의 복합적인 관계를 복제한다. 플라톤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다시 현실의 세계를 복제한 것이 시뮬라크르(simulacre)라고 했는데 대부분 인간의 창작활동은 이런 시뮬라크르의 범주에 들어간다. 인간의 삶 자체가 복제물이고 복제물을 다시 복제한 것이 시뮬라크르라면 플라톤은 복제된 복제물수록 진짜와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 예컨대 사진을 찍는 순간 피사체의 걸모습은 사진에 그대로 나타나지만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의 피사체에게 일어났던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들까지 사진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 순간도 자기 동일로 있을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시뮬라크르는 실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가치 없는 것으로 플라톤은 정의했다.

하지만 소통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사진은 진짜인 원형을 제대로 복제하지

못한 가치 없는 행위에 불과할까라는 점에서 나는 달리 생각한다. 프랑스의 사상가 들뢰즈는 이런 순간적이고 지속성과 자기 동일성이 없는 복제의 행위에 대해, 인간의 삶에 변화와 의미를 줄 수 있는 시뮬라크르로 '사진의 존재론'을 들어 가치를 부여했다. 들뢰즈의 시뮬라크르는 단순한 복제의 복제물이 아니라, 원형이나 원형의 복제물과는 전혀 다른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원형과 같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원형을 뛰어넘어 새로운 자신의 공간을 창조해 가는 역동성과 자기정체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사진이 그렇다. 현실에 놓인 피사체를 복제해 내지만 때로 한 장의 사진은 그 원형의 가치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긴 감동과 여운 그리고 아름다운 감정의 색인(index of emotion)을 만들어 준다. 이러한 감정의 색인은 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난날의 추억을 쉽게 꺼내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함께 기억을 나누고, 격려하고, 장려함으로써 현실의 삶을 보다 즐겁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사진은 플라톤의 '시뮬라크르' 보다는 들뢰즈의 '사진의 존재론' 쪽에서 설명하는 시뮬라크르가 더 합리적이다.

나는 이번 한성대 사진공모전에 출품된 사진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심사했다. 아름다운 시뮬라크르 그리고 그 안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이 있어야 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사진의 최종적인 완성은 제목 붙이기에 있는데 제목과 사진이 연결되지 않거나 또는 다소 평이했던 부분이었다. 더군다나 제목은 바로 사진의 소통을 완성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때, 텍스트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다소 부족했다. 간혹 프로작가들 중에도 이미지만 던져놓고 '알아서 이해

하시오'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한 플라톤의 가치 없는 단순 복제에 가까운 행위다. 대중이 일개의 개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대중을 이해시켜야 하는 현재의 경향에선 더더욱 경계해야 하는 태도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회정의 '휴식'은 이미지의 구도도 무척 안정적이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허름한 벽에 걸려있는 빨래, 그리고 빨래에서 빠져나가버린 주인공도 모두 휴식을 취하는 것만 같다. 노출은 과다했지만 오히려 빛의 질량이 높아 감성에 호소하는 바가 컸겠다. 주변에서 흔히 놓쳐버릴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제목선정과 함께 두고두고 보기에 좋은 시뮬라크르라 하고 싶다.

가작엔 임선희의 '소통'을 뽑았다.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에 대하여 고민했고 또한 제목과 이미지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좋은 사진이다. 아이의 손에 전화가 들려있고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길이 대각선 구도로 멋지게 처리되었다. 다만 좀 더 감성적 코드가 심어져 직설법 보다는 우회해서 주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쉽게도 최우수부 까지 올라와 마음을 여러 번 설레게 했던 작품들도 지면을 빌려 소개하고 싶다. 노은영의 '아버지 삶의 무게'는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다. 그러나 제목을 삶의 무게로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아버지, 기쁨의 무게'라고 하였다면 어땠을까? 보는 이들 모두가 사진에서 세 명의 아이들을 안고서도 활짝 웃는 아버지의 웃음에 감동 받았을 것이다. 두고두고 아름다운 사진이다.

강동현의 '기도'는 그 승고한 시간을 흑백사진

으로 멋지게 처리했다. 매우 감각적이고 멋스럽다. 아쉬웠던 점은 기도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확히 포커스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박정현의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투어'는 매우 안정적이고 수려한 경관을 잘 표현했다. 그러나 역시 사진공모전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목으로 텍스트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아쉽다.

황인호의 '세월'은 주제선정과 이미지의 일치도 좋고, 사진기술도 무척 안정적이다. 그리고 출품한 사진 뒷면에 주제에 대한 부연설명을 첨부한 것 또한 매우 인상적이다. 여러모로 수작인 작품이었지만 포커스의 위치가 본인의 설명대로 연주자의 손에 좀 더 집중했더라면 최우수상을 받아도 좋을 작품이었다.

끝으로 국진선의 '아이들의 미소'는 해외단기 봉사에서 아이들과 아름다운 소통을 나누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좋은 장면의 사진이다. 보는 내 행복이 감명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압부에 묻힌 아이들이 지나치게 어둡게 나온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심사평이라기보다는 즐거운 감상평을 썼다는 것이 옳겠다. 한성대 사진공모전에 출품한 모든 작품들이 그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한 이미지들이었다. 모든 출품자들에게 그 열의와 젊은 참여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해가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사진공모전으로 발전하길 거듭 지원하며 현실의 복제물 또는 복제물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 그 중에서도 사진이 어디까지 인간의 삶을 더욱 흥미롭고 가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사진가 이홍석

한성대학교

Woori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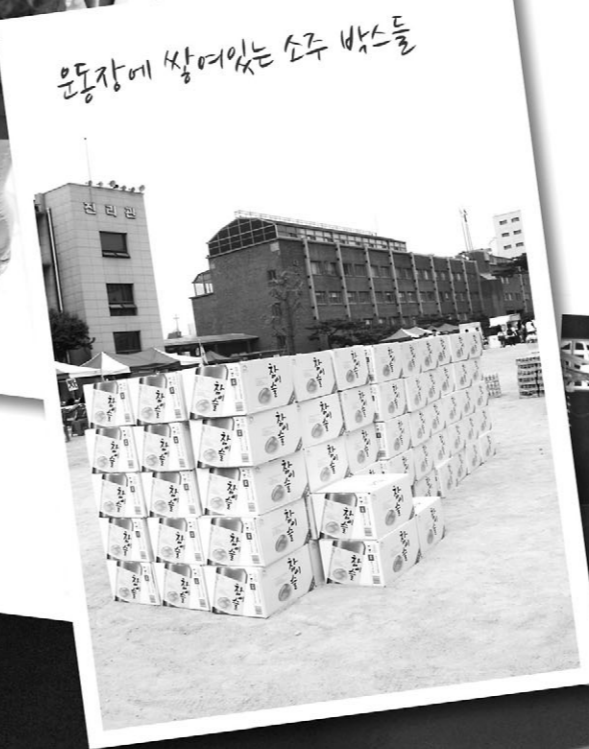
5.23 ~ 5.25



무대공연을 보고 환호하는 학생들



충학생회 축제 안내 부스



운동장에 쌓여있는 소주 박스들



롯데리아 한우불고기 버거 만들기 체험 부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음식을 판매 하고있는 모습



한성대 명가수 1등 손재홍과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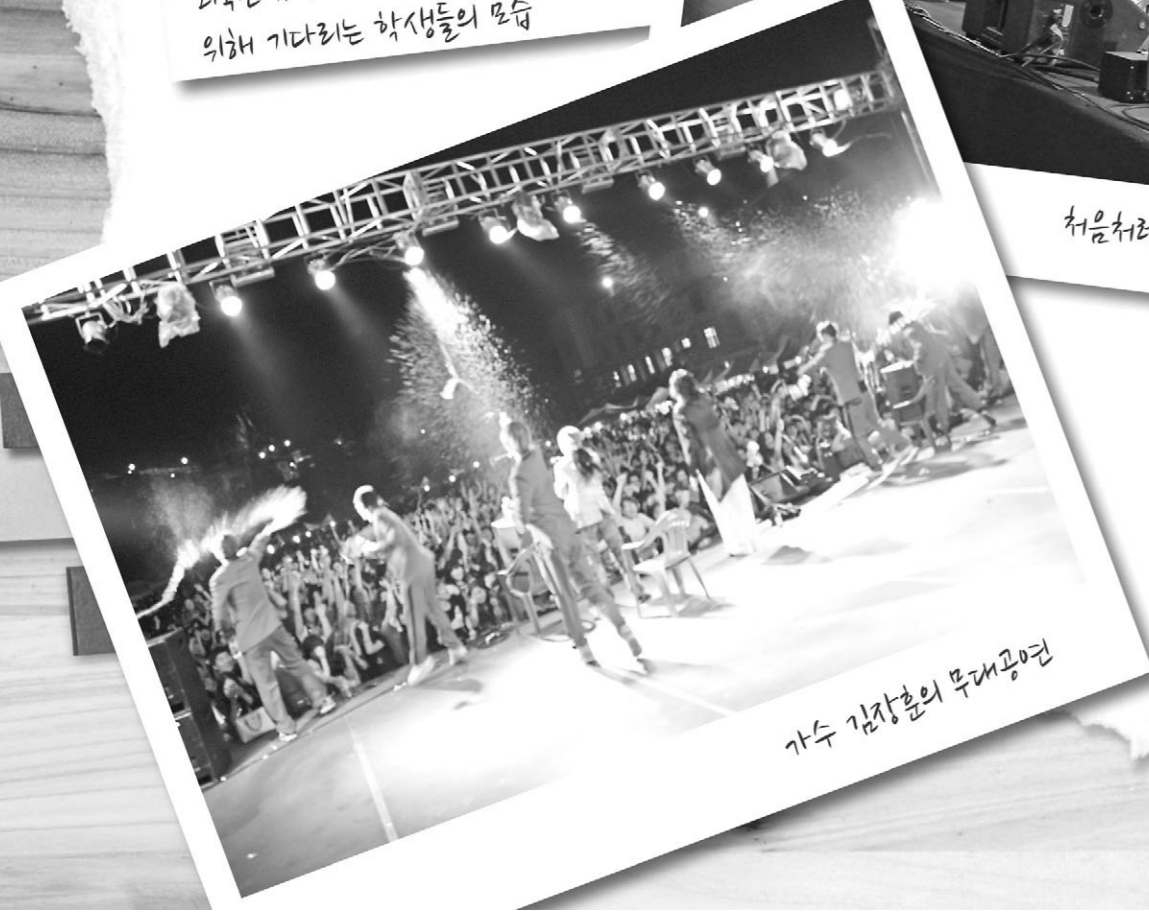
외국인 유학생 부스에서 음식을 구매하기 위해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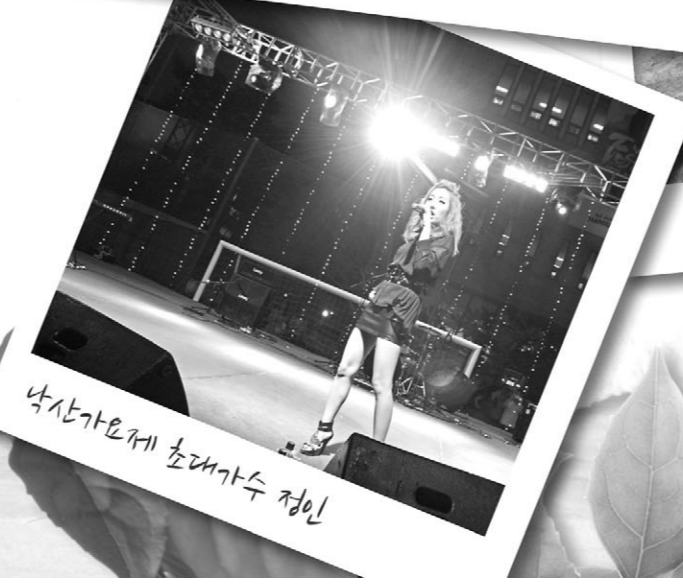
처음처럼 '해드맥스'의 공연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학생들



가수 김장훈의 무대공연



낙산가오르게 노래가수 정인



서울의 걷고 싶은 길

메타세콰이어길

서울에서 볼 수 있는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어길

북서울꿈의숲

성동구에 '서울숲'이 있다면 강북구에는 '북서울꿈의숲'이 있다!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하차 후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공원 안에는 메타세콰이어길이 있다.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어길은 900m의 길이이다. 산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길은 다소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길 옆에 바로 강변북로가 있어 조금은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귀보다는 눈이 호강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어길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도 좋고 가족들이 나들이하기에도 아주 좋은 길이다. 길을 거닐다 보면 마치 남이섬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길 중간에는 피크닉의자가 있어 잠시 쉬어갈 수 있고,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다.



하늘공원 근처에 살고 있다는 안경숙(주부 54) 씨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자주 온다. 주로 산책을 즐기러 온다. 서울 도심안에 이러한 곳이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부인과 함께 이곳을 찾는 심재정(인대업 56)은 "여기를 방문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곳에 올때면, 주로 산책을 즐긴다. 하늘공원에 오는 이유는 집 근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곳은 걷기 편해 산책하기에 좋다. 길이 강변

북로 옆에 있던 길이지만, 서울에서 유일하게 메타세콰이어 길을 즐길 수 있어 소음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가족과 함께 이곳에 산책을 즐기러 온 정국환(연지니어 39)은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어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서울에서 메타세콰이어길을 걸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로 휴일에 가족과 함께 하늘공원을 찾는다."고 전했다.

점으로 꼽는 장점으로는 집에서 가깝고, 서울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 곳 메타세콰이어 길 뿐 아니라 하늘공원에 방문하면, 멋진 자연과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과 함께 휴일오전에 이곳에서 산책을 즐기고 오후에 축구를 보러간다면 환상적인 휴일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매 분기마다 다른 옷을 입는 이 길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른다. 하늘공원만 알고 있을 뿐, 메타세콰이어 길은 잘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이곳을 찾아 자연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챙겨 보는 것은 어떨까.

김현성 기자 103311@hansung.ac.kr



서울성곽길

제주에는 올레길, 서울에는 성곽길

성경관대 후문으로 올라가서 와룡공원에 도착하면 말바위 안내소가 나온다. 조금 걸어 안내소에 근접하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곳에 도착해서 '북악산 서울성곽 탐방 출입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보여준 뒤 명찰을 받으면 성곽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처럼 신분증 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악산 서울

성곽길을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같은 시각 안내소를 방문했던 한 할아버지는 신분증이 없어서 출입을 못하고, 안내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냥 돌아가야만 했다. 숙정문으로 향하는 길에는 성곽 사이사이에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계속 성곽을 따라 걸다 보면 멀리 숙정문이 보인다. 이곳에 군인이

보초를 서는 이유는 이 코스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외 31명의 북한 공비들이 청와대에 침투하려다 실패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121사태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북한 공비 1명, 생포 28명 사살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배경이었던 북악산 길의 소나무에는 곳곳에 총알 자국이 있고, 나무 앞에 121사태를 설명하는 표지판이 있다. 이번 등산에 동참한 황윤해(행정 3) 학생은 "북악산이라는 곳에 처음 올라와봤는데,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흔히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숙정문, 흥인지문, 돈의문, 승례문을 잇는 서울 성곽길을 전부 여행하며 도장을 받으면 이를 기념하는 배지를 받을 수 있다. 북악산 서울 성곽길은 경사가 꽤 가파르기 때문에 산책하러 온 사람들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산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등산을 하러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서야 한다. 실제로 이 길을 걸다 보면 등산장비를 착용한 등산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진우 기자 dwlstr@hansung.ac.kr



면 멀리 숙정문이 보인다. 이곳에 군인이 보초를 서는 이유는 이 코스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외 31명의 북한 공비들이 청와대에 침투하려다 실패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121사태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북한 공비 1명, 생포 28명 사살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배경이었던 북악산 길의 소나무에는 곳곳에 총알 자국이 있고, 나무 앞에 121사태를 설명하는 표지판이 있다. 이번 등산에 동참한 황윤해(행정 3) 학생은 "북악산이라는 곳에 처음 올라와봤는데,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흔히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1 서울성곽길의 모습. 사진 촬영 시, 촬영 금지구역은 아닌지 확인하고 찍어야 한다.
- 2 말바위 안내소에서 받은 사슴도장, 지정된 장소로 가면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현충원 국사봉길

색다른 웰빙 산책코스, 국사봉길

동작역 3번 출구를 나온 후 길을 따라 걸어 가면 '현충원길'이라는 이정표와 나무계단이 나온다. 이 나무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국사봉길'이 있다. 국사봉(國恩峯)은 양명대군이 산봉우리에 올라 멀리 경복궁을 바라보며 나라와 세종의 일을 걱정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국사봉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돌담이 서있으나 돌담이 오래되어 부식되고 무너질 위험이 있어 최근 돌담을 허물고 연두색 펜스로 대체했다. 연두색 펜스 밑에는 백장미, 장미 등을 심어놓았다. 장미 줄기들이 연두색 펜스를 타고 빨간색 꽃을 뽐내는 모습이 제법 아름다운데 아직 심은 지 얼마 안되어 몇 송이밖에 볼 수 없다. 아마 후년쯤이면 펜스와 장미가 어우러져 좀 더 아름다운 산책길이 될 것이다. 길을 계속 걸다보면 '이수폭포'와 '동작정'이 나

온다. 정자 곁에 우거진 산림과 흐르는 물줄기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주황색 조명이 정자의 웅장함을 돋아주고 있다. 이어 계속 길을 걸다보면 인상적인 설치물도 몇 작품 볼 수 있다. 국사봉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추억 이야기 등을 써서 걸어놓을 수 있는 '메모리얼 게이트', 떨어져 사시는 노부 모님들께 전화를 하도록 상기시켜주는 수화기 모양의 '전화벤치', 나무 조각판에 새겨진 류시화 시인의 <눈 위에 쓴 시>, 어들이 노모를 업고있는 동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동작정 앞에서 만난 김옥수(50) 씨는 "근처에 거주해 매번 운동 겸 이 길을 걷는다. 예전에는 맨발바닥이었으나 계단과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해졌다. 또한 벤치,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길을 다듬으면서 걷기 편해지고 외관도 좋아졌다."며 "조금 더 위로 걸어

가면 한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이 길을 걸어 다니다 보이는 산의 경치가 참 좋다."고 전했다. 현재 동작구는 '명품동작'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동작 충효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구려산-현충원 근린공원-한강수변길-사육신역사공원-노랑진역을 연결하는 1-3코스(10.5km)의 1단계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2단계 공사는 노랑진역-노랑진수산시장-노랑진공원-보라매공원-국사봉-까치산을 연결하는 4-7코스(14.5km)를 공사 중에 있다. 이 공사는 올해 4월에 착공되어 11월에 완성될 예정이다. 언제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국사봉길 뿐 아니라 흥과 효를 느낄 수 있는 웰빙 산책코스인 동작 충효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김현범 기자 jounkim@hans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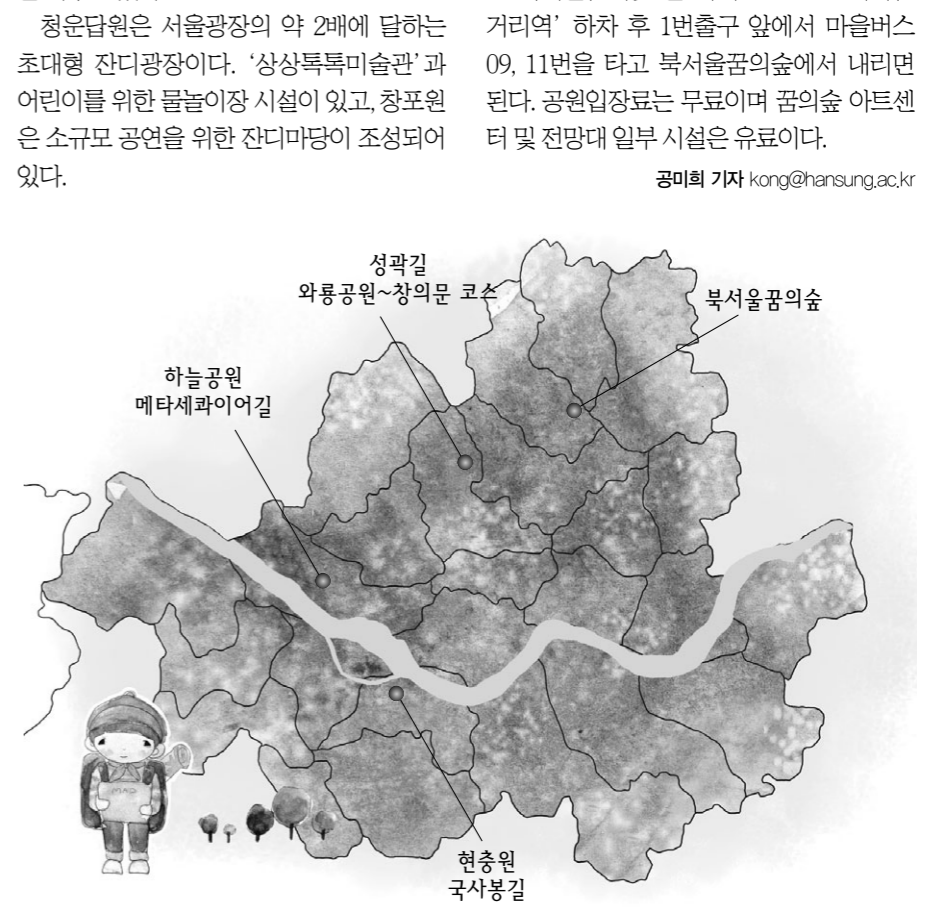
서울 강북과 성북, 도봉 등 6개 구에 둘러싸여 있는 초대형 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은 과거 드림랜드가 있던 자리 66만여㎡에 조성된 녹지공원으로 월드컵공원과 올림픽공원, 서울숲에 이어 서울에서 4번째 큰 규모이다. '북서울꿈의숲'은 방문자센터, 칠폭지, 이야기정원, 월영지, 청운담원, 창포원, 문화광장, 꿈의숲 아트센터, 초화원, 사슴방사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양식 음식을 파는 '라포레스타'와 중국 음식을 파는 '메이린'이 있고, 그 외에도 북카페 등이 있어 공원을 산책하다 허기진 배를 채울 수도 있다.

문화광장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거울 연못, 점핑분수, 어린이놀이터, 희망의숲(조형물), 볼프라자(다목적 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꿈의숲 아트센터는 콘서트홀, 퍼포먼스홀, 유명작가의 사진·그림 등을 전시하는 드림갤러리, 아이리스 촬영장소인 전망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양식 음식을 파는 '라포레스타'와 중국 음식을 파는 '메이린'이 있고, 그 외에도 북카페 등이 있어 공원을 산책하다 허기진 배를 채울 수도 있다.

방문자센터는 '북서울꿈의숲' 동문으로 진입하면 나온다. 방문자센터에서는 안내소를 운영하며 입구에서 '북서울꿈의숲' 전체 지도를 얻을 수 있다. 칠폭지는 지형의 등고차를 이용하여 내려오는 물줄 7개의 크고 작은 폭포경관으로 연출했다. 이곳에는 수생식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생태 연못이 있고, 경사를 이용한 폭포 위로 9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 이야기정원에서는 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된 전통한식 목조가옥인 '창녕위궁재사'와 대나무 숲길 등을 볼 수 있다. 월영지의 풍경은 정자 '애월정'과 7m 높이의 '월광폭포'를 끼고 있는 대형 연못이 어우러져 멋진 경관을 이루고 있다.

청운담원은 서울광장의 약 2배에 달하는 초대형 잔디광장이다. '상상특목미술관'과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 시설이 있고, 창포원은 소규모 공연을 위한 잔디마당이 조성되어 있다. '북서울꿈의숲'을 가려면 4호선 '미아삼거리역' 하차 후 1번출구 앞에서 마을버스 09, 11번을 타고 북서울꿈의숲에서 내리면 된다. 공원입장료는 무료이며 꿈의숲 아트센터 및 전망대 일부 시설은 유료이다.

공희희 기자 kong@hansung.ac.kr



독립영화, 더이상 멀리서 찾지 마세요

아리랑시네센터

모든 극장에서 상영하는 상업 영화 외에 색다른 영화를 관람하고 싶다면? 다양한 독립 영화, 예술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싶다면? 아리랑시네센터를 방문한다면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목말라 있는 당신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만 가면 찾을 수 있는 이곳은 성북구청이 설립한 영화관이다. 2004년 5월에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성북 주민들과 관내 지역 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디어센터와 함께 운영 하고 있다.

성상도(아리랑시네센터) 실장은 "우리 영화관은 멀티플렉스 영화관 보다는 이용객이 적은 편이다. 설립 당시에는 CGV 미아점, 성신여대점이 없어 영화관 이용객이 많았지만,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긴 후로는 이용객이 줄고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인 만큼 수익보다는 영화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이라며 "독립영화 육성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상업영화관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총 3개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2관은 상업영화를, 3관은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이 중 3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독립영화관을 상영하도록 만든 독립영화전용관이다. 성상도 실장은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등 저예산 영화의 육성을 위해 독립영화전용관을 운영하고 있다. 상영 등급이나 저작권 관련 서류가 갖춰질 경우 일반인들이 가져온 영화도 상영하고 있다."며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해 설명했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를 거의 대등한 비중으로 상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상도 실장은 "상업영화나 독립영화의 상영 회차는 6~7회로 거의 동일하다. 1.2관은 상업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독립영화와는 배급형태가 달라 한 개의관에 한 영화만 상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 관내 대학생들을 위한 혜택 저렴한 가격까지

실제로 현재(6월 4일 기준) 1관에는 맨인블랙, 2관에는 코리아가 상영 중이며, 3관에는 네 편의 독립영화가 다른 시간대에 배정되어 상영되고 있다. 성 실장은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상업 영화에 비해 관람객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상업 영화에 비해 하루에 상영되는 회차는 적지만, 시간대를 나누어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3관은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목적관으로 설계되어 무대와 무대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무대를 이용한 공연 또한 가능하다. 성상도 실장은 "3관에는 필름 영상기, 디지털 영상기 등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각종 테크닉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다"며 "타 영화관과는 다르게 캠코더필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골플레이어 등 일반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파일이라면 어떤 파일도 작업해 상영할 수 있다"고 독립영화전용관의 장점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그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한성대학교는 관내 대학이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관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영화 관람 비용을 더욱 저렴하게 해주고 한 적이 있으나, 멀티플렉스 영화관들과의 공정거래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덧붙여 "대관은 3시간 기준으로 50~60만 원 선이지만, 한성대 학생들에게는 영화 관람 수업이나 교내 발표회 등으로 대관이 필요할 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대학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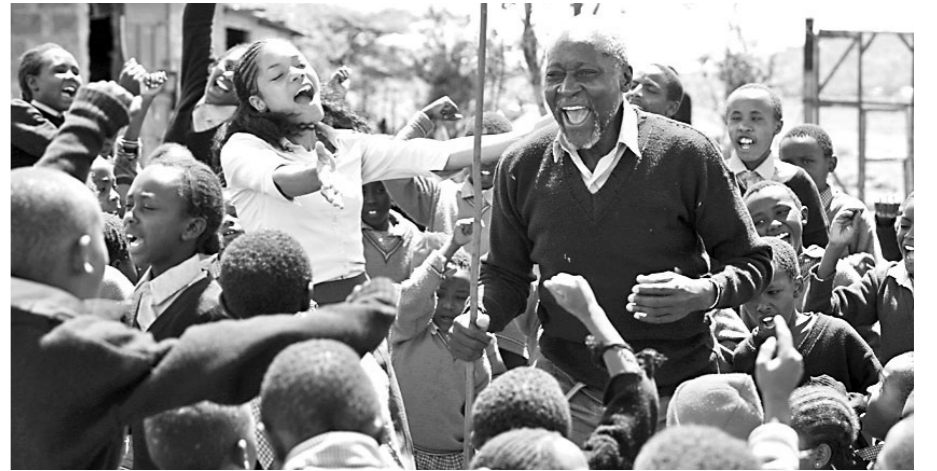
아리랑시네센터는 다른 영화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2조영화는 4천 원, 청소년 6천 원, 어른은 7천 원에 관람이 가능하고 주중과 주말의 가격은 동일하다. 또한 25명 이상 단체관람을 할 경우 1천원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으며 1백 명 이상 단

체관람을 할 경우 1인당 5천 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성상도 실장은 "서경대학교의 경우, 서경대 총학생회가 주최해 영화 단체관람을 하기도 한다"며 관내 타대학 학생들이 아리랑시네센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리랑시네센터를 자주 이용한다는 서진영(43) 씨는 "평일에는 주로 근처에 사는 친구들과 조영화를 많이 보고, 주말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자주 오는 편이다. 근처에 있는 CGV보다 가격이 저렴해 좋은 것 같다."며 가격경쟁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또한 그는 "영화 관람할 때 특별히 불편했던 점은 없는 것 같다. 다만, 3D 영화를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자주 오다니 아이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장단점에 대해 말했다.

오명순(51) 씨는 "집이 근처라서 자주 온다. 이용할 때마다 의자간격이 좁아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의자가 어긋나게 설계되어 앞사람의 머리에 화면이 가리는 일이 없다는 점은 정말 좋다."며 이용후기를 전했다. 또한 그는 "도서관도 가깝고, 지나가다 커피 한 잔하며 쉬기에는 여기만한 곳이 없는 것 같다"며 "바로 옆에 위치해있는 아리랑정보도서관은 책도 많고 주말에는 사람이 많아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이니 영화관 방문 시 함께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도서관 이용을 장려했다.

아리랑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조혜인(21) 씨는 "평일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지만 주말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와 같이 쉬는 날이면 많이 붐비곤 한다. 가족단위로 많이 찾지만 대학생들도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아리랑시네센터 야외에 위치한 아리랑매장은 항상 이용할 수 있지만, 주말이던지 지하 2층 1관 옆에 위치한 실내 매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독립영화전용관 방문기 84세 마루게의 배움에 대한 열망... '퍼스트 그레이더'

퍼스트 그레이더는 84세 최고령 초등학교 1학년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마루게 씨의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다. 이 영화는 전국에서 단 4개 영화관에서만 상영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아리랑시네센터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평점 9점이 넘는 이 영화는 케냐 독립 직후 상황을 그리고 있으며, 마루게 씨는 독립투사로서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케냐는 전국민에게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송을 내보내고, 마루게 씨는 이 방송을 듣고 작은 시골 학교를 찾아가게 된다.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장소가 협소해 교실은 마치 콩나물시루와 같다. 글을 배우고 싶은 욕망에 학교를 찾아가던 마루게 씨에게 제인 교장은 "공간이 없고, 책과 연필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한다. 이튿날 아침, 마루게 씨는 책과 연필을 사들고 다시 학교를 찾아가고, 교복을 입지 않은 학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가족을 팔아 마련한 교복을 입고 다시 학교에 찾아가다.

배움에 대한 그의 집념에 감동한 젊은 여학생 '제인'은 그를 위해 적극적인 멘토가 되어준다. 식민지 시절 독립 운동을 하다가 노인과 아이를 잃은 마루게, 당시 겪은 상처를 잘 잊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이지만, 그 어떤 학생들보다도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그에게 다른 어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비난한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인 선생은 지방으로 좌천당하게 된다. 마루게 씨를 통해 자유와 투쟁에 대해 배운 아이들은 제인 선생을 되찾기 위해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마루게 씨는 교육부를 찾아가 제인 선생의 복귀를 위해 애쓴다. 그는 식민지 시절 당한 고문으로 생긴 상처들을 보여주며, "남겨진 흉터를 통해 과거를 배워야 하며, 이 시기를 잘 타개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만이 살 길"이라며 일장연설을 한다.

모두의 노력으로 제인 선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고, 마루게 씨는 마침내 '편지 한 통'을 읽게 된다. 독립투사로서 욕망을 해왔던 그의 과거가 담긴 편지 한 통. 그 편지 한 통으로 마루게 씨는 살아있는 과거로서 인정받게 된다. 교육에 대한 그의 열정은 세계에 알려져 UN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등 크나큰 성과를 얻게 된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상황이 비단 케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은 아니다. 식민지라는 어두운 과거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끔찍한 폭정과 고문에 시달리며 독립을 쟁취해 낸 이 시대의 노인들이 더 이상 무시당하고 산송장 취급당하는 시대를 비판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잘 설명하는 영화 '퍼스트 그레이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찾아볼 것을 권한다.

아리랑미디어센터

아리랑미디어센터는 시네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장비대여에서부터 작품 제작, 편집과정을 모두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시네센터를 통해 상영할 수 있으며 일체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미디어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섭 씨는 "대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장·단편영화 제작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진행되는 데, 영화제작에 관심있는 이들이 모여 장편영화 한 편을 찍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장비 대여 및 관내 시설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를 찍을 때 필요한 스텝을 직접 모집할 필요가 없이 참가자들끼리 서로 서로 도와가며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좋다."며 프로그램이 가지는 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호섭 씨는 카메라와 사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DSLR 아마추어 사진작가 양성반도 운영되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이라며 추천했다. 이 프로그램은 DSLR 카메라의 기능에서부터 촬영

노하우, 포포샵 편집에 이르기까지 개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하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UCC 1인 다큐 영상제작과정, 포토샵·일러스트로 블로그 꾸리기, 온라인 쇼 팸플 제작하기 등의 영상장작교육과 미디어로 눈높이하기, 사진예술과 창작 읽기, 영상수기 제작과 실습 등의 청소년·미디어 이론 교육, AVID 미디어컴포저 영상편집 전문교육, 모션그래픽 전문교육 등의 영상기술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영화제작 무료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현재 2회째 시행되고 있다. 이호섭 씨는 "이 프로그램은 독립영화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 시나리오를 공모하여 촬영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기간에 시나리오를 제출해 선정되면 2개월 간 모든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가능하다"며 프로그램의 목적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제로 제작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이경진(서경대 연극영화학부 3) 학생은 "영화감독이 꿈이라 현재 스텝을 꾸려 같이 영화를 찍고 있다. 시나리오, 주제 및 동

장비대여부터 작품제작, 편집, 상영까지 한 번에

기작성 등 제작지원에 필요한 양식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간단한 신청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매주 테스트 촬영을 하는 관계로 촬영장비를 대여할 때 기본 일주일 정도는 빌리는 것 같다.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 좋고, 무엇보다도 무료라서 촬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덧붙여 그는 "학교 영화제에 출품할 영화를 제작중이다. 본선에 오른 작품들은 시네센터에서 상영한다. 매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다. 6월 15일에 여기서 상영할 예

정이나 영화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성상도(아리랑시네센터) 실장은 "미디어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반응이 뜨거운 프로그램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연극, 영화를 만나다'라는 교육프로그램"이라며 "최근 연극·영화 등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아 연예인이나 연극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다. 사설 교육기관에서 레슨을 받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30명을 뽑아 1

년 간격지도도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영화를 상영을 하기도 하고, 게다가 간식도 지급한다. 또한 유명 연예인과 연극배우를 초청해 강연을 하고 있다. 높은 경쟁률 때문에 지원자들은 엄격한 오디션을 거치게 되는데, 영화배우 박준규씨가 심사를 맡아줬다."며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묘사했다.

미디어센터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영화제작시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설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하고 있다. 단, 특별회원으로서 등록한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하다. 장비 대여료 및 특별회원 등록 절차는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홈페이지 (<http://cine.arir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성북구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1 아리랑시네센터 입구 티켓박스
- 2 2층 3관 독립영화전용관의 전경
- 3 1층 영화갤러리
- 4 멀티미디어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 5 시네센터 복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촬영실습
- 6 시네센터를 견학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
- 7 녹음실
- 8 HDV편집실
- 9 장비보관실
- 10 HD편집실



기획부

교단에서



탁세령 교수 (무역학과 강사, 한국수출입은행 부부장)

후배들에게 전하는 '후회없는 대학생'

학교를 졸업하고 15년이 훨씬 지나서 다시 한성대 강의실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이력서를 가지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많은 대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인 금융공기업에 입사하여 15년을 근무한 선배가 하는 조언이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선배가 하는 잔소리를 다스린다면 더 듣고 우리 후배들도 나름대로의 길을 잘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년이 되어서 취업이라는 큰 문제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다. 이때 막연히 졸업 후 적당한 회사에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가고 싶은 분야 더 정확히 말하면 가고 싶은 회사를 몇 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더불어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내세울 수 있도록 각종 동아리 활동 및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요즘 기업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동적으로 근무하는 스타일이 아닌 국내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며 이를 해결할 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원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과 수업교재를 혼합하여 나름대로 개성있는 강의를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후배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의욕만 앞선 한화기였다. 생각이 든다. 직장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저녁에 시간을 내서 하는 강의라 많이 피곤했지만 강의실에는 피곤함을 잊게 해주는 후배들이 있었다. 그래서 더 의욕이 생겼던 것 같다.

대학생활의 목적이 취업은 아니지만,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먼저, 저학년 때는 어느 전공을 분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또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어공부와 전산에 관련된 수업을 반드시 수강해야 할 것 같다. 이 시기에는 아직 졸업 후 어떤 분야로 갈지 정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기본기가 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시기이다. 특히, 외국어 능력은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없으므로, 저학년 때부터 쉬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전공시험을 보는 회사인지, 외국어능력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지, 면접은 어떤 형식으로 보는지 등 취업을 원하는 회사에 대한 채용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신의 전공이 취업을 원하는 회사의 입사시험 과목에 있는지 잘 확인하고, 없다면 별도의 시간을 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대학생이 인생에서 제일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후배들도 대학생활의 낭만을 만끽하길 바란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낭비하는 대학생들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활기찬 대학생생활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알차게 한다면,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더욱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줄 댓글

방학 때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이번 호 주제는 '방학 때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입니다. 꼭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했던 곳, 이미 가봤던 곳인데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곳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쳐주세요.

위지훈(경영 2)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산티아고 가는 길, 종교적인 이유 없이도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는 길이라는 것을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가보고 싶어지는 길이다.

안정한 요즘, 그 근원지의 사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지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남정현(경영 3) 우즈베키스탄-실크로드의 중심지이며 동과 서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 중심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역사적 슬픔을 지닌 고려인들과 하나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에 감성을 일깨워줬을까? 게다가 올해 여수 엑스포도 개최되어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아닐까 싶네요.

원종희(무역 3) 부산-부산 밤바다에 태어나서 한번도 기본 적이 없어요. 올 여름 방학에는 꼭 가서 부산의 매력에 흠뻑 취하고 싶어요. 오오 돌아와와 부산항에!

이수진(영문 4) 한국에는 아니고요. 대 학생이라면 꼭 해봐야 한다는 코레일 내 일로터켓으로 우리나라 곳곳 숨겨진 지역을 여행하고 싶네요.

정다솜(의예 3) [영국] 작년에 유럽여행 때 첫 도시로 갔었는데, 캐리어가 도착하지 않아서 2일 동안 잘 씻지도 못하고 돌아다녔지만,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자유로운 영국의 분위기, 알록달록한 건물들에 이끌려 너무나 신나게 여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시 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일상에 같이 끼고 싶어요.

박전강(국문 2) 1박 2일에 나왔던 명소들... 맨날 tv로만 보고 가본적이 없네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여러곳 가는 길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1박 2일이라 학기중에 가기가 애매하네요. 아르바이트에 과제에 기타 등등...

이번호 당첨자는 남정현(경영 3), 정다솜(의예 3), 임정기(기계 2) 학생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문화상품권을 받아주세요.

이동철(경영 4) 여수 - 지난 겨울에 여수에 다녀왔는데 야경이 정말 좋았네요. ~그런 엑스포 공사중이라 안엘 들어가보지 못했지만 이번엔 엑스포도 구경하고, 항일암에서 일출도 구경하고 싶네요.

오재혁(기계 3) 몽골 - 작년에 다녀온 해외봉사활동으로 만난 아기와 친구들이 그림네요. 빨리 재회의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임소희(부동산 3) <여수> 버스커버스커 - 여수밤바다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잔잔

이휘영(역사 2) [그리스] 금융위기로 불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한성대신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면에 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내용인든 신문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문사로 보내주세요.

- 소재 예시
-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것
- OO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우리 동아리를 자랑합니다!'
- '나는 고백한다, OOO를...'
- 한성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영화, 여행지 등

-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4~5매 (A4용지 절반 정도)
• 투고대상 : 한성대신문을 읽는 교내 모든 구성원
• 혜택 : 신문에 독자투고가 실린 분께 소정의 원고료 제공

- 투고방법 : 이메일 (press@hansung.ac.kr)
•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 (02) 760-4186

한성대신문사

|사설|

취업 중개자가 필요한 시점

취업철도 아닌 요즘 우리 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대학에서 취업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것은 교과부가 대학지원을 위한 평가지표로 대학별 취업률을 채택하고 있고, 올해 기준 취업률을 상향했기 때문이다. 세계적 경향처럼 국내외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만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취업난의 근본 원인은 수요공급의 불균형에서 온다. 산업 규모의 신장에 비하여 취업인구의 증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일개 대학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대외활동의 한계와 적은 수의 교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수 외에 이러한 중재자로 취업한 졸업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취업한 졸업생은 소속회사에서 인력을 뽑을 경우 요구 스펙과 대우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라면 그 스펙을 충족하는지도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수보다 더 좋은 중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도 이러한 문제가 예견되는 문제인 만큼, 졸업생 취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수, 배우는 학생 및 이를 지원하는 직원 즉,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합심일체가 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우리대학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학과별로 취업행사를 지원해오고 있고, 대부분의 학과에서도 이 행사의 하나로 잘나가는 졸업생을 초청하여 재학생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치고, 취업으로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행사가 취업에 대한 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2% 아니 20%이상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과 더불어 또 다른 취업에 대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는 '회사는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 없어서 문제이고, 대학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이런 잘 알려진 문제조차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이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의 정확한 스펙을 알지 못하고, 회사는 대학생의 능력과 신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은 적절한 중재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재자 역할을 이제까지는 부분적으로 교수가 해 왔다. 그러나 교수의

최근 대학 당국에서 추진 중인 졸업생 데이터 구축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오천 명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일반 명 이상의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한편 몇 년 전부터 한 명의 졸업생이 중심이 되어, 조율하지만 아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졸업생 모임에도 우리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여러 일들이 부족한 20%이상을 채우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로세로

Grid for the word search puzzle with numbers 1-7 indicating starting points.

• 정답자 발표 김성훈(무역 4) 010-xxxx-5839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이번 신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그 기사의 소감을 적어주세요.

- 가로
1. 낙엽침엽교목으로 원산지는 중국이고 한국, 중국 등에 분포하며 주로 공원으로 식재된다.
2. 기온이 다 빠져 없어짐
3. 군대 따위의 조직에서 서열이나 직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옷이나 모자에 다는 표징
4. 학생들이 쓰는 식량
5. 불탄의 추구선수의 성, 경기도중 쓰러진 선수이다.
6. 그림 따위의 미술품을 진열하여 전람하도록 만든 방. 대체로 화상(화)이 가계를 겸한다.
7. 온화한, 순한, 조용한, 조심스러운 뜻을 지닌 영어단어
8. 오픈 소스 모바일 운영 체제이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리눅스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한 삼성 리눅스 플랫폼 운영 체제(SLP)로부터 탄생하였다.
9. 주가폭락 제9호에 속하는 백금족원소이다. 원소기호는 Ir, 원자번호는 77, 원자량은 192.22, 녹는점은 2447°C, 끓는점은 4527°C이다.
10.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없는 모습이나 내용. '참된 모습'으로 순화
11. 대학교에서, 방학 중에 강의를 개설하여 수업을 하는 기간
12. 우단을 깐 대(대) 위에서 상아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몇 개의 공을 한 칸 대가 끝으로 쳐서 승부를 가리는 실내 오락
13. 닭튀김(Fried chicken)의 일종으로, 닭튀김 위에 가늘게 썬 파주로 대파 사리를 얹은 요리이다.
14. 남부 아시아 인도의 남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18세기 말부터 영국 식민지로 지배. 1948년 영국연방 자치령으로 독립하였고 1972년 국명을 실론(Ceylon)에서 00000으로 바꾸고 영국연방에서 완전 독립하였다.
15. 백지영과 매우 친한 그룹 콜의 멤버 이름

정답자에 한해 추천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재학생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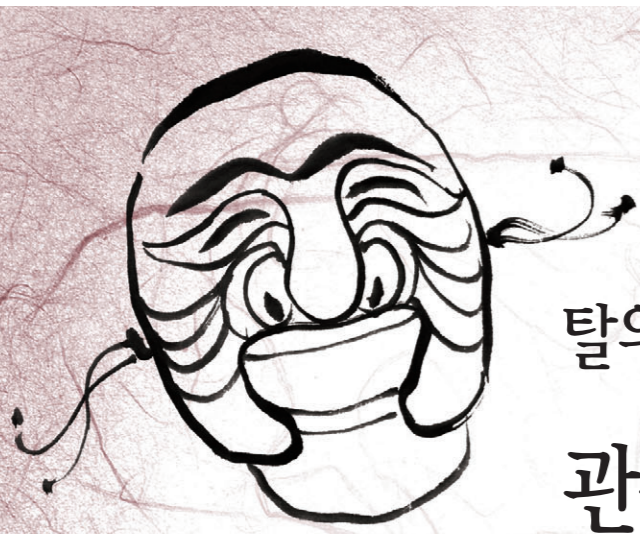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입니다. 2012년 재학생 온라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래 링크된 동영상은 다운받아 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예방동영상 - '성매매없는 밝은 사회 만들기' (링크주소 : http://www.moge.go.kr/files/directDownload/v20111207.wmv)

또는, 양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www.hansunggender.org) - 게시판 - 공지사항에 해당 동영상은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 : 2012년 5월 14일(월)~ 2012년 6월 13일(수)
자세한 문의 : 양성평등상담소 (02-760-5813 / www.hansunggender.org)





탈의 겉모습에 숨겨져 있는 다양함 관상학적 특성, 캐릭터의 특성이 녹아있는 탈



탈은 얼굴을 가리는 특수 조형품으로 동양이나 서양, 문명이 발전된 민족이나 미개한 민족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민족 사이에 존재한다. 봉산탈춤보존회 장용일(67) 전수조교는 "인류가 수렵시대에 맨얼굴로 수렵목표물에 다가가면 동물이 눈치채고 도망갈 것을 염려해 위장용 가면을 쓰고 접근했던 것이 탈의 시초"라며 "초기에는 단순히 위장의 목적으로 쓰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과 교류를 하고, 굿을 할 때 사용하는 등 탈의 이용목적이 다양해졌다"고 탈의 기원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탈은 1946년 경주 노서리 호우총 고분에서 출토된 6세기경 신라시대의 '목심칠면'으로 이 탈은 방상제(죽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탈)라 하여 고대 신라시대부터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되었다. 또한 『삼국사기』와 『고려사』에도 탈을 사용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궁중의례 등에서 주로 공연되었던 탈놀이는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서민이식이 향상됨에 따라 제의적인 측면은 약해진 반면, 양반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주된 주제가 되면서 지금의 놀이형태로 전승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탈이 있다. 그 중 하회탈은 우리나라의 탈 중 유일하게 국보(제121호)로 지정된 귀중한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며 가면미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회탈은 탈의 생김새를 통해 신분적 특성을 표현하였으며, 그 특성에 어울리는 관상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양반탈은 조형적 측면에서 볼 때 얼굴형에서부터 눈썹, 눈, 코, 볼, 입 등이 부드러운 선으로 묘사되어 있고 여유로운 표정을 하고 있다.

또한 하회탈은 얼굴 좌우를 비대칭적으로 만들어 고정된 표정을 피하고, 모든 종류의 탈이 극중 인물의 성격에 알맞은 표정을 짓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양반, 선비, 중, 백정탈은 턱을 분리시켜 인체의 턱 구조와 같은 기능을 갖게 하였다. 이는 탈을 할 때 실제 모습처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다른 탈에서는 볼 수 없는 하회탈이 가지는 특징이다.

한 예로 양반(양반탈을 쓴 광대)이 기분이 좋거나 하여 고개를 뒤로 젖히고 크게 웃는 동작을 취하면 이때 하회탈은 윗 얼굴과 아래턱이 크게 벌어지며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양 언저리 쪽이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 박장대소하는 듯한 표정을 띠게 된다. 반대로 고개를 숙이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으며 노한 표정을 띠게 된다.

봉산탈춤에 쓰이는 탈들 또한 특성이 있다. 장용일 전수조교는 "봉산탈춤은 다른 탈 놀이들보다 활동적이고 도약적이며 힘이 있다. 얼굴이 하얀 각시탈을 쓰고 힘차게 도약하면 행동과 탈이 안 어울린다. 강렬한 동작을 하는 역할은 강렬한 생김새의 탈을 써야 표현하고자 하는 비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탈이 저마다의 독특한 생김새를 지니게 된 것에 대해 장용일 전수조교는 "탈이란 수단이 제의적인 면을 포함한다. 그 때문에 탈놀이는 벽사의식(오망)하고 간사한 귀신을 쫓아내려 하다가보니 탈의 형태는 자연스레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검은색 피부에 좁쌀 점들이 있는 탈은 10~20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면벽수도를 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얼굴을 까맣게 표현한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점들은 벌레들이 얼굴을 기어다니며 배설한 배설물을 의미

한다. 이 같은 탈은 꿈은 인쇄심과 신념을 지키는 캐릭터를 탈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얼굴이 빨간 스님 탈은 술을 먹고 취한 모습의 스님을 의미한다. 이 탈은 일탈하는 캐릭터를 탈로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탈은 다양한 생김새와 개성이 있어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탈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탈의 겉모습 속 숨겨진 다양한 의미를 음미하며 바라보는 건 어떨까.

김한범 기자 jourkim@hansung.ac.kr

공간사용설명서

성북동 오래된 집



피땀피땀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늘어 서있는 한옥과 양옥, 그리고 저층 공동주택, 만해 한옥촌이 살았던 심우장과 소설가 이태준이 살았던 고택을 카페로 개조한 수연산방 그리고 미술사학자 최순우 선생의 옛집 등 그 주인공이나 우리 건축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근대 도시한옥이 즐비한 이곳, 성북동 골목길 풍경은 오늘도 여전하다. 다만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이곳저곳 걸어 놓은 '붉은색 현수막' 만이 그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마치는 종착지를 알리듯 남겨져 있을 뿐이다. 이처럼 '멈춰진 시간 속 성북동 골목길'은 그 좁은 공간 안에 세월의 흔적을 고스라니 간직하고 있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오랜 세월 그들의 공간에 손길을 덧입히며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을 축적해 가고 있다.

성북동 62-10번지, 62-11번지, 20평 남짓의 터 위에 콘크리트 외벽을 친 후기와지붕을 얹은 이곳은 60-70년 개발 시대의 전형적인 소형주택이다. 그 주소가 말해주는 이들은 엄연히 다른 번지의 다른 집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이 두 집은 들어가는 입구가 다름에도 안으로서는 서로가 통하고 있다. 한때는 그 주인이 같아 이들을 한 집처럼 사용했으리라. 마당이라 부르기에 너무 소박한 공간, 그 주변을 감싸는 잘 곱삭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조금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 본래의 물질만큼 삭막하거나 건조해 보이지 않는다. 손때가 묻어나는 나무창틀과 벽지를 덧댄 흔적이 역력한 콘크리트 벽 위에는 그곳에 머물렀던 이들의 역사가 고스라니 새겨져 있다.

누군가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이 '오래된 집'에서는 현재 예술가들이 입주해

그 사회, 역사적 의미를 예술적 도구를 통해 재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거주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당 공간을 자신의 주거 목적에 맞게 유지보수하며 그 형태를 변모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점차 폐가로 변해가는 이 낡은 공간의 가치를 '재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는 '재개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예술적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한다. 그 주제의 현실성만큼이나 이곳에서 벌어지는 예술 활동은 지역주민과의 직접소통을 목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은 주변의 이웃과 빈번히 공유되고 또 그들에 의해 변화되기도 한다.

낙후된 도시환경 개선, 부동산 가치 보존 혹은 상층, 효율적 공간 구획 등 그간 끊임없이 열거되었던 도시 재건축의 당위성은 특정 건축양식의 절대적 우세를 통해 발휘되어왔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 거대 공동주택들이 이 도시를 채워나가고 있는 것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북동 '오래된 집'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의 징검다리'이다. 그동안 그 물리적 공간과 함께 소멸되어 온 '시간이 머무는 공간'이며 이 공간은 우리 개인의 다양한 삶의 역사와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꼭 남겨져야 할 것이지 모른다.

최영환 작가



사진이야기



등하교를 할 때, 문득 그냥 이 길을 따라 걷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칙칙하고 삭막했던 담벼락에는 어느새 예쁘고 생생한 벽화들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성대 분들이 정성스레 그려주시는 벽화 덕분에 예전보다 더 자주 학교를 걸어서 등교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1년도 부지런히 이 길을 따라 걷고 싶네요. 아아, 세월이런!

원종희(무역 3)

기말고사, 힘내세요!
한성대신문이 학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